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1학년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안녕감과 자아탄력성

유아교육학과

박유진

2012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안녕감과 자아탄력성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6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 박 유 진

박 유 진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지도교수 박 은 혜 _____

심사위원 이 승 연 _____

 김 순 환 _____

 박 은 혜 _____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목 차

논문개요	vii
I. 서론	1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B. 연구문제	4
II. 이론적 배경	5
A. 안녕감	5
1. 주관적 안녕감의 개념과 구성요인	5
2. 심리적 안녕감의 개념과 구성요인	7
3. 예비유아교사의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	10
B. 자아탄력성	13
1. 자아탄력성의 개념과 구성요인	13
2. 예비유아교사의 자아탄력성	16
C.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안녕감과 자아탄력성의 관계	20
III. 연구방법	24
A. 연구대상	24
B. 연구도구	25
C. 연구절차	28
D. 자료분석	29

IV. 연구결과 및 해석	30
A.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안녕감	30
1.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주관적 안녕감	30
2.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심리적 안녕감	33
B. 예비유아교사의 자아탄력성	38
C.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안녕감과 자아탄력성의 관계	41
1.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주관적 안녕감과 자아탄력성의 관계	41
2.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심리적 안녕감과 자아탄력성의 관계	43
V. 논의 및 결론	45
A. 논의	45
1.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안녕감	45
2. 예비유아교사의 자아탄력성	48
3.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안녕감과 자아탄력성의 관계	49
B. 결론 및 제언	52
참고문헌	55
부록	64
ABSTRACT	75

표 목 차

<표 - 1> 연구대상 예비유아교사의 일반적 배경	24
<표 - 2> 주관적 안녕감 측정 도구의 구성	26
<표 - 3> 심리적 안녕감 측정 도구의 구성	27
<표 - 4> 자아탄력성 측정 도구의 구성	28
<표 - 5>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주관적 안녕감의 평균과 표준편차	30
<표 - 6> 연령에 따른 주관적 안녕감	31
<표 - 7> 교육정도에 따른 주관적 안녕감	32
<표 - 8> 교직 유지 예상기간에 따른 주관적 안녕감	33
<표 - 9>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심리적 안녕감의 평균과 표준편차	34
<표 - 10> 연령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	35
<표 - 11> 교육정도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	36
<표 - 12> 교직 유지 예상기간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	37
<표 - 13> 예비유아교사의 자아탄력성의 평균과 표준편차	38
<표 - 14> 연령에 따른 자아탄력성	39
<표 - 15> 교육정도에 따른 자아탄력성	40
<표 - 16> 교직 유지 예상기간에 따른 자아탄력성	41
<표 - 17>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한 주관적 안녕감과 자아탄력성의 관계	42
<표 - 18>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한 심리적 안녕감과 자아탄력성의 관계	43

논문개요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안녕감과 자아탄력성의 전반적인 양상과 예비유아교사의 변인에 따른 안녕감과 자아탄력성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안녕감과 자아탄력성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안녕감은 어떠한가?
 - 1-1. 예비유아교사의 변인(연령, 교육정도, 교직 유지 예상기간)에 따라 주관적 안녕감은 차이가 있는가?
 - 1-2. 예비유아교사의 변인(연령, 교육정도, 교직 유지 예상기간)에 따라 심리적 안녕감은 차이가 있는가?
2. 예비유아교사의 자아탄력성은 어떠한가?
 - 2-1. 예비유아교사의 변인(연령, 교육정도, 교직 유지 예상기간)에 따라 자아탄력성은 차이가 있는가?
3.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안녕감과 자아탄력성의 관계는 어떠한가?

본 연구는 서울시에 소재한 유아교육과 예비유아교사 21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예비유아교사의 안녕감에서 주관적 안녕감 측정을 위해 Diener(1984)가 개발한 주관적 삶의 요소(Subjective Well-Being: SWB)를 바탕으로 서은국, 구재선(2011)이 한국인의 정서를 반영하여 개발한 단축형 행복 척도(Concise Measure of Subjective Well-Being: COMOSWB)를 사용하였고, 심리적 안녕감 측정을 위해서는 Ryff(1989)가 개발한 심리적 안녕감 척도(Psychological Well-Being: PWB)를 바탕으로 박신영(2010)이 변안·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예비유아교사의 자아탄력성 측정을 위해서는 Block(1978)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Ego-Resilience Scale: ERS)’를 바탕으로 Klohenn(1996)이 최종적으로 29개의 항목으로 추려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를 박현진(1997)이 변안한 ‘자아탄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을 산출하였고, 독립표본 t 검정,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Duncan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안녕감과 자아탄력성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주관적 안녕감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삶의 만족이 높고 부정 정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유아교사의 변인 중 교육정도, 교직 유지 예상기간이 주관적 안녕감과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4년제 대학교의 예비유아교사가 3년제 대학교의 예비유아교사보다 삶의 만족과 긍정 정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직 유지 예상기간이 10년 초과인 예비유아교사가 10년 이하인 예비유아교사보다 삶의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비유아교사의 심리적 안녕감도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긍정적 대인관계가 높고 자율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유아교사의 변인 중 연령, 교직 유지 예상기간이 심리적 안녕감과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예비유아교사의 연령이 낮을수록 심리적 안녕감 전체와 긍정적 대인관계, 자기수용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예비유아교사의 교직 유지 예상기간이 10년 초과 일수록 심리적 안녕감 전체와 자율성, 환경통제력, 개인적 성장, 자기수용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예비유아교사의 자아탄력성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낙관적 태도가 높고, 숙련된 표현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유아교사의 변인 중 교육정도, 교직 유지 예상기간이 자아탄력성과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4년제 대학교의 예비유아교사가 3년제 대학교의 예비유아교사보다 대인관계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직 유지 예상기간이 10년 초과 일수록 낙관적 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안녕감과 자아탄력성은 정적상관이 있으며, 하위요인 간에도 전반적으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주관적 안녕감의 삶의 만족과 자아탄력성의 낙관적 태도 사이에서 가장 높은 정적상관을 나타내었으며, 심리적 안녕감의 자기수용과 자아탄력성의 낙관적 태도 사이에서 가장 높은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I. 서 론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질은 32개 회원국 중 31위를 기록하여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박유연, 2012. 2. 27). 반면, 우리나라 최근 40년 동안 1인당 국민 소득은 200배 이상 증가하여 우리 사회의 물질적 풍성함에 대한 지표는 기하급수적인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김원아, 2012). 따라서 객관적인 삶의 조건이 높아진다고 하여 반드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교육수준, 나이, 성별, 소득수준 등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은 삶의 질 총 변량의 15% 이상을 설명할 수 없다(Seligman, 1994/2009). 그러므로 삶의 객관적 근거에 의해 측정되는 삶의 질보다 개인이 인식하는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행복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최근 연구자들은 개인의 삶의 질을 파악하기 위해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에 주목하고 있다. 주관적 안녕감은 삶에 대한 전반적인 요인의 반응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며, 심리적 안녕감은 개인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반응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장기간의 반응을 반영한다(차경호, 2004).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이 별개의 독립적 측면이라는데 학자들은 대체로 동의하였고(김혜원, 김명소, 2000b; 김경순, 2006; 이상숙, 2009; 차경호, 2004),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므로(이상숙, 2009), 각각 독립적으로 측정하여 상호보완적인 정보를 얻을 때 안녕감을 더 잘 측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차경호, 1999).

교사의 자질 중 어떤 부분이 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교사의 안녕감(박신영, 2010; 배성희, 2009; 이경애, 이경민, 2010; 이경민, 최윤정, 2009; 이미란, 김정원, 2011)과 자아탄력성(구희정, 강정원, 2009; 이수련, 이정화, 2010; 정혜옥, 이옥형, 2012)을 교수·학습과정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들로 밝힌 연구들이 있다. 유아교사의 안녕감은 교사-유아의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곽희경, 2011), 자아탄력성은 직무만족도와 정서노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김윤경, 2011) 유아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주요 변인으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아교사가 삶에서 안녕감을 느낄 때, 유아가 안전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내적갈등을 해결하도록 지원할 수 있고, 유아를 보호하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며, 양질의 교수자 역할을 할 수 있다(Katz, 1995, 유순이, 2003 재인용). 또한, 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안녕감은 교사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행복한 유아교사는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유아교사의 안녕감 향상에 영향을 준다(이경민, 최윤정, 이경애, 2009). 최근 보고된 선행연구에 따르면, 유아교사의 안녕감은 교사의 강점 활용, 교직에 대한 만족 정도와 정적 관계를 보였으며(이경민 외, 2009), 영유아교사의 행복감 수준은 평균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이미란, 김정원, 2011). 따라서 유아교사의 안녕감이 높다는 것은 교사의 개인적인 삶의 측면 뿐 아니라,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고, 유아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교육환경을 이루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자아탄력성은 예비유아교사가 삶에 대한 노력을 자발적으로 일으키며, 사회속에서 다양한 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하는 삶의 원동력이 되는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예비유아교사에게 긍정적 밑거름이 되어 삶 전체에 선순환을 일으켜, 유아교사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 정서는 안녕감으로도 설명할 수 있으므로 자아탄력성과 안녕감은 상호보완적으로 삶에 대해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태도를 형성하여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제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 동안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자아탄력적인 사람들은 자아경직적인 사람들에 비해 불안이나 우울감에 덜 취약할 뿐 아니라, 세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긍정적 정서를 보인다(고은정 1997). 또한 자아탄력적인 사람들은 대체로 상황을 스트레스로 지각하는 경우가 적으며, 일단 어떤 상황이 스트레스로 지각되더라도 이로 인해 예기불안이나 우울을 경험하는 경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유지연, 2011). 높은 수준의 자아탄력성을 지닌 유아교사는 낙관적인 태도를 지니며 대인관계에서도 더 적극적이고 개방적이기 때문에 유아와 온정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심리적 소진을 덜 경험한다(심순애, 2007). 또한,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와 부적 상관을 보이므로(박현진, 1996), 유아교사가 지니는 자아탄력성의 수준에 따라 긍정적·부정적 정서경험의 정도와 안녕감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예비유아교사들은 향후 유아교육·보육 현장의 교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이 스스로 택한 직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자아상 확립이 필요하다(양은정, 2002). 예비유아교사가 자신의 능력, 미래 직업에 대한 계획과 준비,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형성에서도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할 때 자신이 선택한 직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 예비유아교사는 교사양성과정을 통해 유아교사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변화시켜 나가는데(박은혜, 조운주, 2007), 이는 교사가 된 이후에도 사고와 행동, 개인적·전문적 발달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임승렬, 2003)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아교사 양성기관은 예비유아교사의 안녕감과 자아탄력성 측정을 바탕으로 한 예비유아교사의 특성을 규명하여, 현직교사로 진입했을 때 교직을 유지하고 양질의 교사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도와야 한다.

예비유아교사의 안녕감과 자아탄력성 간의 관계에 대한 관련 연구로는 낙관성, 사회적지지, 스트레스, 직무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김정은, 2010; 박영신, 2012a; 박영신, 2012b) 등이 있다. 그러나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은 개인의 만족 그 이상을 의미하는 개념이고, 자아탄력성의 일부 특성과 주관적 및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통해 자아탄력성 전체와 주관적 및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안녕감과 자아탄력성의 전반적인 양상과 예비유아교사의 개인 변인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고, 안녕감과 자아탄력성 사이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예비유아교사의 안녕감과 자아탄력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 유아교사 양성기관에서 예비유아교사의 안녕감 향상을 위한 교사교육 프로그램 및 자아탄력성 증진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B.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안녕감과 자아탄력성, 그리고 그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안녕감은 어떠한가?
 - 1-1. 예비유아교사의 변인(연령, 교육정도, 교직 유지 예상기간)에 따라 주관적 안녕감은 차이가 있는가?
 - 1-2. 예비유아교사의 변인(연령, 교육정도, 교직 유지 예상기간)에 따라 심리적 안녕감은 차이가 있는가?
2. 예비유아교사의 자아탄력성은 어떠한가?
 - 2-1. 예비유아교사의 변인(연령, 교육정도, 교직 유지 예상기간)에 따라 자아탄력성은 차이가 있는가?
3.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안녕감과 자아탄력성의 관계는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A. 안녕감

행복한 삶에 가치를 두는 것은 문화보편적인 현상으로, 행복에 대한 관심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지속되고 있다. 행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은 긍정심리학(positive psychology)에 대한 연구의 증가를 바탕으로, 많은 학자들은 삶의 질(quality of life) 또는 안녕감(well-being)에 대한 연구들을 더욱 활발히 진행시켜왔다. 긍정심리학은 삶의 긍정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식이며, 개인의 단점이나 약점보다는 장점이나 강점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긍정심리학은 개인의 긍정적 정서를 강화함으로써 삶에서 좋은 특성을 개발하고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는데 궁극적 목적이 있으며(김남희, 2005), 개인의 행복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또한, 높은 삶의 질을 위한 개인의 안녕감은 외적 조건이나 우연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잠재된 재능과 강점 특성을 찾아 연습함으로써 개발될 수 있는 삶의 기술이라고 보기 때문이다(Seligman, Park, & Peterson, 2005).

개인의 안녕감을 밝히기 위해 연구자들은 크게 두 개의 각도에서 접근하고 있다. 한 부류에서는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SWB)이라고 하여, 이들은 행복한 사람을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정도가 높고, 적은 부정 정서와 많은 긍정 정서를 경험하는 상태라고 정의한다. 반면, 다른 부류에서는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 PWB)이라고 하며, 이들은 다양한 심리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개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삼았다.

1. 주관적 안녕감의 개념과 구성요인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SWB)이란 개인이 주어진 삶의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경험하는가를 의미한다.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는 다양하다. Szalai(1980)은 주관적 안녕감은 개인이 일상 생활에서 느끼는 안녕감이나 만족감으로써 정서적 안정을 나타내는 성격특성

으로 정의하였으며(김명소, 성은현, 김혜원, 1999 재인용), Veenhoven(1991)은 주관적 안녕감을 개인이 삶의 질적 수준을 호의적으로 판단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정은선(1997)은 주관적 안녕감을 개인이 경험 내적 주관성을 지니고 삶에 대한 전반적이고 통합적인 판단으로 정의하였다. 즉, 주관적 안녕감이란 삶의 여러 영역에 걸친 자신의 경험, 성취, 관계의 질과 자신에 대해 되돌아보고 가치를 부여하고 종합한 것에 근거하여,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해 내리는 평가 혹은 선언이라고 볼 수 있다(Diener, Oishi, & Lucas, 2003).

Diener(2000)는 ‘주관적 안녕감’을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하여 갖는 인지적이고 정서적인 평가라고 정의하고, 주관적 안녕감을 2가지 하위요인으로 정리하였다. 인지적 요인(cognitive factor)과 정서적 요인(emotional factor)이 주관적 안녕감의 하위요인이며, 각 하위요인에 대한 기능을 잘 할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정상원, 심홍섭, 2008). 즉,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사람은 삶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고 지속적인 긍정적 정서 반응이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Diener가 제시한 주관적 안녕감의 하위요인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지적 요인(cognitive factor)은 삶의 만족(life satisfaction)을 일컫는다. 삶의 만족이란, 개인이 설정한 기준과 비교하여 자신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판단 과정을 말한다(서은국, 구재선, 이동귀, 정태연, 최인철, 2010). 자신이 지각하는 삶의 여건을 자신이 설정한 삶의 기준과 일치한다면 삶의 만족은 높을 것이다. 그러므로 삶의 만족은 개인이 스스로 선택한 기준들을 근거로 하여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해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자아를 구성하는 요소를 분석한 연구를 바탕으로, 주관적 안녕감의 인지적 요인을 3가지 요인으로 세분화 하였다(서은국 외, 2010). 인지적 요인은 개인적 성취·성격·건강 등을 포함하는 개인적 측면의 만족, 가족·친구·동료 등과의 관계적 측면의 만족, 그리고 직장·지역사회 등 개인이 속한 집단에서의 만족으로 구성된다(서은국, 구재선, 2011). 삶의 만족은 복잡한 다차원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삶의 만족은 어떤 결정적인 상태가 아니며, 개인의 내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유미숙, 신미, 전성희, 2010). 특히, 삶의 만족은 개인의 내적특성 등 개인적인 자원과 관련이 더 높았으며(Diener & Seligman, 2002), 대인간 특성에도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김의철, 박영신, 2004).

둘째, 정서적 요인(emotional factor)은 일반적으로 행복감이라고 불리어지기도 하는데(Ryan & Deci, 2001), 개인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긍정 정서(positive affect) 및 부정 정서(negative affect) 경험을 말한다.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에 따라 유쾌·불쾌한 정도와 저·중·고의 각성수준에서 다양한 형태의 차이를 보인다. 정서적 요인은 삶의 여건에 대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정서반응을 모두 포함하며, 이 두 정서는 독립적이고 구별되는 구조이다(서은국, 구재선, 2011). 따라서 주관적 안녕감은 삶의 부정 정서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부정 정서보다 긍정 정서가 우세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주관적 안녕감의 2가지 하위요인인 인지적 요인과 정서적 요인은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때때로 독립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여러 변인들과 서로 관계성을 보이기 때문에 이들을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여겨진다(김명소 외, 1999). 즉, 주관적 안녕감의 인지적 요인과 정서적 요인이 완전히 독립적이지는 않지만, 이 두 요인을 독립적으로 측정했을 때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상호보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권두승, 2007).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사람은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인지적으로 만족스럽다고 판단하며, 생활 전반에서 적은 부정 정서와 많은 긍정 정서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인식은 똑같은 환경에서도 다르게 반응하는 개인의 기대와 가치, 경험을 바탕으로 조건들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는 개인의 자아존중감, 내적 통제, 외향성, 나아가 사회적 관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한 것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이재신, 이지혜, 2011).

2. 심리적 안녕감의 개념과 구성요인

안녕감에 대한 또 다른 관점인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 PWB)은 삶에 대한 전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인 주관적 안녕감과 달리 개인적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되는 심리적 측면들의 합을 말한다. 즉, 심리적 안녕감은 주관적 안녕감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삶의 질을 심리적 기능의 차원에서 측정하려고 하였으며, 이 삶의 질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한 개인이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삼았다(신경숙, 2009). Ryff(1989)는 심리학적 이론들을 기초로 하여 심리적 안녕감을 측정할 수 있는 6개 영역을 제

시하였다. 6개 영역은 구체적으로 자율성(autonomy), 환경통제력(environmental mastery), 개인적 성장(personal growth), 긍정적 대인관계(positive relation with other), 자기수용(self-acceptance)이다. 따라서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긍정적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행동을 독립적으로 혹은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있고, 주위환경에 대한 통제력이 있고, 삶의 목적이 있으며,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시키는 동기가 있다.

첫째, 자율성(autonomy)은 자신의 신체적 조건이나 생리적 현상 또는 자신의 느낌, 생각, 가치관, 성격 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여, 자신이 세운 가치관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설기문, 2001). 자율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결단력이 있고 독립적이므로, 자신의 행동을 내적 동기에 의해 조절함으로써 사회적 압력에 저항할 수 있다. 반면, 자율성이 낮은 사람은 타인의 평가나 기대에 대해 걱정하며, 타인의 판단에 의존하거나 사회적 압력에 동조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Ryan과 Deci(2001)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로 자율성을 꼽았고, 이런 기본적인 만족의 결과가 행복을 낳는다고 하였다. 또한, 이수진(2009)의 연구에서도 대학생의 자율성이 안녕감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둘째, 환경통제력(environmental mastery)은 자신이 환경을 잘 관리하는 능력이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복잡한 외적 환경을 관리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으로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통제력이 높은 사람은 주위에 있는 기회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이 있으므로, 개인적 필요나 가치에 적합한 환경을 선택 또는 변화시킬 수 있다(강정갑, 2001). 그러나 환경통제력이 낮은 사람들은 일상적인 일 또는 주위환경 변화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므로, 주위에 있는 기회를 인식하지 못해 외부세계에 대한 통제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된다.

셋째, 개인적 성장(personal growth)은 자신이 지닌 특성을 바탕으로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발전해 간다고 스스로 느끼는 정도를 말한다. 개인적 성장이 우수한 사람은 자신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함을 느껴, 새로운 경험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지니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며 자신을 보다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려 하는 의지를 보인다. 반면 개인적 성장이 더딘 사람은 자신의 삶에 지루함을 느껴 시간에 따른 성장이나 발달에 소극적인 양상을 보여 새로운

태도나 행동을 발전시킬 수 없다고 느낀다. 따라서 개인은 자신의 삶에 대해 개발하고 새로운 변화에 도전하여 삶의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 가면서, 새로운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어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서현주, 2006).

넷째, 긍정적 대인관계(positive relations with others)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따뜻함, 만족감, 신뢰감을 바탕으로 원만한 상호작용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긍정적 대인관계 능력이 높은 사람은 강한 애정, 친밀감, 공감을 느껴 온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 할 수 있다(강정갑, 2001). 반면, 긍정적 대인관계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타인에 대해 폐쇄적이고 고립감과 좌절감을 느껴, 타인과 상호작용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보인다(구본용, 1991).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는 한 개인이 정신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하며, 신체적 건강에도 도움을 주고, 삶이 행복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한다(한규석, 2002). 따라서 개인이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발달하기 위해서는 긍정적 대인관계 형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삶의 목적(purpose in life)은 삶의 목표와 방향 감각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인간이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주어진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뚜렷한 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진 사람은 삶의 목표와 방향을 바탕으로 과거와 현재의 삶이 의미 있다고 느끼므로 긍정적인 태도를 지닐 수 있다(강정갑, 2001). 그러나 삶의 목적이 불분명한 사람은 삶에 의미를 부여할 신념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

여섯째, 자기수용(self acceptance)은 자신의 신체적 조건, 가치관, 성격 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설기문, 2001). 자아수용이 높은 사람은 자신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지니므로 자신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을 포함한 여러 측면을 인지하고 수용할 수 있다(강정갑, 2001). 반면, 자아수용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장점보다 단점에 의미를 더 부여하므로, 자신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자신의 과거의 삶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자기수용은 자신을 바로 이해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 긍정적 대인관계에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여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즉, 심리적 안녕감은 개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이며, 여러 학문적 이론들을 기초로

하여 좋은 삶에 대한 정의라고 하였다. 심리적 안녕감의 6개 차원은 이론적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되는 심리적 변인이다. 심리적 안녕감의 정의를 요약하면, 자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다른 사람들과 신뢰성 있고 온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주변 환경을 잘 통제함으로써 스스로의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며, 삶의 목적이나 의미를 견지하여 자신의 능력이나 소질을 키워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2001)는 Ryff(1989)가 제안한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 요인들을 한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적용하여 연구한 결과, 심리적 안녕감의 6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모델이 한국 성인들의 심리적 안녕감을 설명하는데도 적합한 모델임을 밝혔다. 또한, 한국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심리적 안녕감 연구에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심리적 안녕감은 낮고, 젊은 층의 경우 자아수용성의 중요성이 두드러지는 반면, 고령자의 경우 자아수용성과 함께 삶의 목적과 긍정적 대인관계의 중요성이 나타나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김혜원, 김명소, 2000a).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사람은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지며, 지지적인 관계망을 형성하고, 대학생들의 지속적인 행복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설진미, 2006). 또한, 심리적 안녕감은 개인의 희망, 정서조절전략, 인정과 관심, 갈등과 불신, 나아가 가족응집성, 사회적 지지, 예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한 것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김남희, 2005; 김민정, 이희경, 2006).

3. 예비유아교사의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개인의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해 별개의 독립적인 측면으로 인식할 수 있다(이상숙, 2009). 주관적 안녕감은 삶에 대한 전반적인 요인의 반응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반응 기간이 짧고, 무의식적 동기들이나 생리적 상태의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는다. 반면, 심리적 안녕감은 개인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반응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장기적인 기간의 반응을 반영하므로(차경호, 2004), 개인이 처한 삶의 조건에 대한 의식적 판단으로서 개인의 욕구나 삶의 목표를 반영한다. 주관적 안녕감은 좋은 삶에 대한 조적적 정의로 볼 수 있으며, 심리적 안녕감의 6개 요인들은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변인으로 이해

할 수 있다. 따라서 안녕감을 인지적 요소와 감정적 요소 중 하나만으로 측정하는 것보다 두 요소의 비율을 적절하게 혼합함으로써 더 잘 측정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제시된 바 있다.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을 알아봄으로써 서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이 별개의 독립적 측면이라는 데 학자들은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김혜원, 김명소, 2000b; 김경순, 2006; 이상숙, 2009; 차경호, 2004). 즉,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이 완전히 독립적이지는 않지만, 각각 독립적으로 측정하여 상호보완적인 정보를 얻을 때 안녕감은 더 잘 측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차경호, 1999).

생활 속에서 안녕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근면하고 사교적이며 이타적인 성향을 보이며 문제해결에서 사고의 유연성과 창조성을 발휘한다(Seligman, 1994/2009). 또한, 삶의 질이 높은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긍정적 정서를 자주 경험하고 부정적 정서를 드물게 경험하며, 이는 그들이 삶에서 단지 부정적인 측면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아니라 보다 긍정적인 측면을 반영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만족할 수 있다(구재선, 김의철, 2006).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안녕감을 느끼는 정도에 따라 삶에 대한 태도가 다를 수 있으며, 이는 일상생활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끼치므로 개인의 안녕감에 대해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유아교사의 안녕감은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최근 보고된 선행연구에 따르면, 유아교사의 행복은 교사의 강점 활용, 교직에 대한 만족 정도와 정적 관계를 보였으며(이경민 외, 2009), 영유아교사의 행복감 수준은 평균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이미란, 김정원, 2011). 따라서 행복한 유아교사는 자신의 강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유아교사로서의 직무에 대한 만족감 또한 전반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유아교사가 행복할 때, 유아가 안전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내적갈등을 해결하도록 지원할 수 있고, 유아를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으며, 유아에게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교수역할을 제공할 수 있다(Katz, 1995, 유순이, 2003 재인용). 이처럼 유아교사의 안녕감이 교사 개인의 행복 뿐 아니라 유아교육의 질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아교사의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은 중요하다. 따라서 유아교사의 안녕감이 높다는 것은 교사의 개인적 삶의 측면 뿐 아니라,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고, 유아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교육환경을 이루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유아교사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직교사의 직전 단계인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삶의 질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예비유아교사의 삶의 질이란 그들이 생활 속에서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것이므로,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안녕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안녕감이란 일상생활 속에서 부딪치는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개인의 주관적인 정서 경험을 말하며(Ryan & Deci, 2001), 안녕감이라는 말로도 쓰이고 있다. 연구자들은 개인의 삶의 질을 파악하기 위해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SWB)과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 PWB)에 주목하고 있다. 주관적 안녕감은 삶에 대한 전반적인 요인의 반응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반응 기간이 짧고, 무의식적 동기들이나 생리적 상태의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는다. 반면, 심리적 안녕감은 개인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반응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장기적인 기간의 반응을 반영하므로(차경호, 2004), 개인이 처한 삶의 조건에 대한 의식적 판단으로서 개인의 욕구나 삶의 목표를 반영한다.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이 별개의 독립적 측면이러는데 학자들은 대체로 동의하며(김혜원, 김명소, 2000b; 김경순, 2006; 이상숙, 2009; 차경호, 2004),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므로(이상숙, 2009), 각각 독립적으로 측정하여 상호보완적인 정보를 얻을 때 안녕감을 더 잘 측정할 수 있다(차경호, 1999).

예비유아교사는 유아교사 양성과정을 통해 교사역할에 대한 신념을 형성하며, 이러한 신념은 이후의 교직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이희경, 김성수, 2007). 예비유아교사들은 유아교사로서의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인식의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며, 유아교사로 진입하기 전과 후 모두 어려움을 겪는다(박지선, 이대균, 2011) 예비유아교사는 교사양성과정을 통해 좋은 교사로 성장하는 발달의 토대를 마련하며, 이 시기에 예비유아교사의 경험은 이후 교사가 되어 유아교육 실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예비유아교사가 유아교사 양성과정에서 성공과 좌절을 통해 경험하는 다양한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의 반복적은 유아교사에 대한 스스로의 이미지를 만들고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Day, 2004/2007). 예비유아교사가 느끼는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중요성은 유아교육의 특성을 살펴 볼

때 더욱 부각된다. 유아교사의 언행은 유아의 발달과 학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양육과 교육을 모두 포함한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므로, 다른 어떤 연령의 학습자를 가르치는 교사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적 자질이 필요하다(신은수, 1996). 따라서 향후 유아교육의 질적 심화와 미래의 유아 행복 향상을 위해서 예비유아교사의 행복이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예비유아교사의 인식에 관한 연구는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이후 유아교사가 되어 유아에게 미칠 안녕감을 다원적이고 통합적인 방법으로 이해하는데 필요하다.

B. 자아탄력성

1. 자아탄력성의 개념과 구성요인

탄력성(resilience)은 본래 물리학에서 ‘물체가 외부에서 힘을 받았을 때 튀기는 힘이 있는 성질’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었다(국립국어원, 2012). 탄력성이란 용어는 위험에 노출된 영유아들에 대한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위험한 환경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적응한 아동들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그러나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거나(Winfield, 1991), 동일한 용어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정의내리고 있다(Fraser, Richman, Galinsky, 1999). 이는 탄력성이라는 용어가 갖는 의미가 상당히 포괄적이라는 것을 시사해 준다. 특히, ‘탄력성’과 동일한 개념으로 자주 사용되는 ‘회복력’이라는 용어는 탄력성의 중요한 개념인 성장의 의미를 나타내지 못하며, 이전에 이미 병리적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 탄력성의 본래의 의미를 나타내기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홍은숙, 2006).

탄력성은 Rutter(1987)에 의해 처음 소개된 이후 여러 연구들에서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으나 일반적으로 두 가지 관점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첫째,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탄력성을 성격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여 ‘아주 심각한 상태나 만성적 스트레스나 외상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적응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Garmezy, 1993). 둘째, 발달정신병리학적 관점에서는 탄력성을 발달상의 적응 과정으로 규정하여 ‘생활에서의 위기와 스트레스 상

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그 상황에 대처하는 역동적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Rolfe, 2004). 즉, 탄력성은 높은 위험상태에 처해있거나 만성적 스트레스와 그 스트레스로 인한 심한 외상적 경험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여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Block과 Block(1980)은 탄력성이란 개념과 자아통제라는 개념을 접목시켜 자아탄력성(ego-resilience)이란 용어를 소개하였다(이하나, 정현주, 이기학, 이학주, 2006 재인용). 일시적이고 적응이 필요한 스트레스의 영향에서 다시 그 이전의 자아-통제 수준으로 되돌아 갈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탄력성과 구별하여 자아탄력성이라고 하였다. 자아탄력성은 당면한 과제에 대처하기 위해 자아통제 수준을 변화시키는 자아의 조절능력과 인지능력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또한, Garmezy(1993)는 자아탄력성을 높은 위험상태에 처해있거나 스트레스로 인한 심한 상처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개인적 능력으로 정의하였고, Masten(2001)은 발달이나 적응에 대한 심각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로 특징지어지는 현상으로 정의하였다. 이처럼 자아탄력성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는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자아탄력성은 위기, 삶의 변화, 스트레스 상황 등을 극복하고 정상적 성장과 발달이 지속되도록 하는 개인 내적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Klohn(1996)은 '자아탄력성'은 역경을 극복하고 성공적 적응으로 이끌 수 있는 개인적 태도와 능력으로 정의하고, 자아탄력성의 특성을 4가지 하위요인으로 정리하였다. 자신감(self-confidence), 대인관계 효율성(personal efficiency), 낙관적 태도(optimism), 숙련된 표현력(skilled expressiveness)이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이며, 개인이 각 하위 요인에 대한 기능을 잘 할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Klohn이 제시한 자아탄력성의 구성요소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신감(self-confidence)이란 생산성, 역경에 맞선 끈기, 진취성, 독립심을 의미한다. 자신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생산적이고, 업무에 대한 완성도가 높으며, 역경에 처했을 경우 이를 극복하는 경향을 보인다(Klohn, 1996). 인지적 효율성이 높을수록 도전적인 과제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Block & Kremen, 1996), 학업에 있어서도 지적 성취도가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더 인지능력을 잘 활용하고, 사회적 지지를 쉽게 얻는 경향이 있으며, 세상에 대한 긍정적 참여와 경험에 대

한 개방성을 지닌다.

둘째, 대인관계 효율성(personal efficiency)이란 개인의 사회적 관계 및 사회적 지각에 대한 능력을 의미한다. 대인관계 효율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동기 및 행동에 대한 통찰력을 지니므로(Klohn, 1996), 대인관계에서 높은 사회적 유능감을 발휘하기 위한 기제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낙관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은 타인에게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며, 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성격적 특징을 가진다(김지영, 2008).

셋째, 낙관적 태도(optimism)란 직무상 스트레스 상황을 해결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신념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거나 회피하려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김은희, 박희서, 2010). 미래에 좀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반적인 긍정적 기대를 바탕으로 개인은 노력과 포기를 결정하게 되는데, 낙관적 태도를 지닌 사람일수록 삶에 대해 적극적이고 희망적인 시각을 가진다(Klohn, 1996). 즉, 자아탄력성의 낙관적 태도는 자신의 삶에 대해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며, 자신의 행동결과에 대해 좌절하지 않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삶의 태도라고 볼 수 있다.

넷째, 숙련된 표현력(skilled expressiveness)이란 개인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절한 정서표현을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적인 대처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숙련된 표현력에 숙련된 사람일수록 사회적 기술에서 숙련되어있으며, 타인에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덜 느끼는 경향이 있다(Klohn, 1996). 또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충동적 행동을 융통성 있게 조절하고 효율적으로 적응하는 행동특성을 지니므로써, 숙련된 표현력을 개인의 목표와 욕구를 실현해 나가는 내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Block, 1980; 박병기, 이선영, 송정화, 2010 재인용).

그 밖에도 자아탄력성의 구성요인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연구를 살펴보면, Block과 Block(1980)은 문제해결력, 성격의 안정성, 자신감, 적응력, 또래관계, 인지능력의 6가지로 산출하였고, O'Connell-Higgins(1983)은 활력성, 감정 통제력, 대인관계, 낙관성의 4가지로, Wolff(1995) 자기가치, 자기효능감, 긍정적 반응, 사교성, 적응성의 5가지로 구분하였다(황신덕, 2004 재인용). 또한, Wloin과 Wloin(1993)은 자아탄력적인 사람은 통찰력, 독립성, 관계성, 주도성, 창의성, 도덕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아탄력성의 구성요소를 알 수 있다고 하였다(박병기 외, 2010 재인용).

국내에서는 한국아동성인검사가 또래관계 및 자신감, 자기수용 및 낙천성, 가족관계의 3가지로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소를 구성하였고(정유숙, 김승태, 김지혜, 홍성도, 1996), 박은희(1996)는 대인관계, 활력성, 감정통제능력, 호기심, 낙관성의 5가지 요소로 구분하였다. 또한, 이지연(2000)은 또래관계, 자신감, 감정통제능력, 자기수용 및 낙관성, 가족관계의 5가지 요소로, 윤현희, 홍창혁, 이진환(2001)은 또래관계와 낙관성, 공감과 자기수용, 집중력과 자신감, 이해력, 리더십의 5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개인의 자아탄력성을 분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인간은 대부분 인생에서 위기의 순간을 맞는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두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자아탄력성은 인간에게 가장 나쁜 시기가 최선의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능력이다(서지영, 2002). 또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다양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기 때문에 자아탄력성은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자아탄력성은 개인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능력과 자원에 관심을 집중하여(홍은숙, 2006), 개인의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이해 및 발달시킬 수 있는 기제로 사용할 수 있다. 자아탄력성은 개인의 자기효능감, 자기조절성, 정서적 안정성 등에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질 높은 수준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내적 요소이므로 중요한 것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2. 예비유아교사의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적인 사람은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며, 자기 확신과 수용이 높고, 창조적이며, 자신의 정서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인지적 능력도 우수하다(이하나 외, 2006). 또한, 자아탄력적인 사람일수록 긍정적인 정서를 사용하여 스트레스적인 경험에서 빠르고 효율적으로 회복하며 스트레스와 충돌할 경우 긍정적인 의미를 찾아내고 효과적인 정서조절기제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반면 자아탄력성이 취약한 사람들은 적응적 유연성이 떨어져 변화나 낮은 상황에 반응하는데 있어 불안해하고 보수적이며, 외상적 사건에서 회복되는데 어려움이 있다(Block, 2006; 박병기 외, 2010 재인용).

같은 수준의 스트레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심리적 안녕감을 상실하고 좌절하며 부적응적 양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이하나 외, 2006). 그러므로 변화의 속도가 급속한 현대사회에서 유아교사의 과중한 업무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 등에 유연하게 적응하기 위한 건강하고 탄력적인 자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교사일수록 스트레스를 초래하는 문제 상황에서도 과도한 불안에 빠지지 않고, 환경과 상황에 적합한 문제해결방식으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교사 발달 단계에 따라 직무만족을 느끼는 영역이 다르므로, 교사의 직무만족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교사 발달단계를 고려해야 한다(서연주, 2007).

교사의 자아탄력성은 교육 현장으로부터 받는 심각한 스트레스의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되도록 긍정적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보호요인으로 기능하게 한다(김혜순, 2011). 따라서 교사의 탄력적인 자아상은 개인적 교수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자아탄력적인 유아교사들은 가족 또는 타인과 온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또한, 자아탄력적인 유아교사들은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활동적이고 환기적인 접근을 하고 감정적으로 어려운 경험을 잘 헤쳐 나가는 능력을 지닌다. 유아와 성인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불분명한 장면이나 대인관계에서 보다 자신감 있고 유능함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Block & Kremen, 1996). 자아탄력적인 유아교사들은 상황에 따라 긴장, 인내의 수준을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키는 조절능력이 높기 때문에 낮은 상황에서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들에 유연하게 반응함으로써 성공적인 적응을 할 수 있다(안진희, 2010). 높은 수준의 자아탄력성을 지닌 유아교사는 낙관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지녀 대인관계에 있어 더 적극적이고 개방적이어서 유아와 온정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심리적 소진을 덜 경험하므로(심순애, 2007), 교사의 자아탄력성이 유아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사의 정서노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즉, 영·유아들과 함께 활동하는 시간 동안에도 자신감 있는 낙천성과 생산적인 활동으로 영·유아들에게 질적 교육을 기대 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인 교사가 자아탄력적인 유아교사라고 말할 수 있다.

유아교사의 자아탄력성은 교육현장에서 당면하는 여러 문제 상황으로부터 자신이 받는 스트레스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경험에서도 긍정적 정서 상태를 유지하게 하여 맥락에 적합한 교수활동이나 문제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심리적 특성으로 기능한다(박서연, 정영숙, 2010). 유아교사가 지닌 자아탄력성

은 개인의 성장과 발달, 교수권한, 직무조건, 대인관계 등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김인숙, 2009) 이는 교사-유아의 상호작용과 교육의 질로 연결되므로 이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예비유아교사가 성공적으로 자신이 선택한 직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자아정체성의 확립이 요구되며,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질 수 있다(최진숙, 윤경선, 2009). 자아탄력성이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시적이고 적응이 필요한 스트레스의 영향으로부터 다시 그 이전의 자아-통제 수준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되돌아 갈 수 있는 역동적인 능력이다(Block, 1982; 황신덕, 2004 재인용). 자아탄력성은 한번 성취하면 항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시기에 탄력적인 사람도 다른 시기에서는 탄력성이 떨어져 취약할 수 있다. 즉, 자아탄력성은 절대 불변하는 성격 특성이 아니며, 후천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개인적 특성이다(박병기 외, 2010). 따라서 자아탄력성이 교사의 이후 발달을 예측하는 변인이 될 수 있으므로, 유능한 유아교사 양성을 위해 예비유아교사의 자아탄력성 분석은 필요하다. 예비유아교사가 보이는 자아탄력성에 대한 특성을 관련 연구들을 통해 알아보고, Klohnen(1996)의 자아탄력성 하위요인에 따라 분류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신감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긍정적 자아개념을 가진 교사가 긍정적인 사회관계를 맺으며 바람직한 교수행동을 하고, 나아가 성공적인 교직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노길영, 1999). 교사의 효능감은 교사의 교육여부, 경력, 개인차 등에 의해 형성되고, 특히 교사양성과정에서의 교육경험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 또한 한번 증가된 자아효능감은 다른 상황에도 전이되므로, 예비유아교사가 교사양성과정에서 경험한 자아효능감은 이후의 교직생활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강영욱, 2011). 유치원 교사의 자신감은 경력이 높아질수록 자신감이 향상되고, 경력이 낮을수록 성취감이 결여되는 경향을 보였다(이수련, 이정화, 2010). 또한, 예비유아교사들은 실습 과정을 통해 유아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반대로 긍정적인 경험을 가지기도 함으로써 교사로서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차영숙, 강민정, 유희정, 2011).

둘째,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유아교사들은 동료교사와 원장과의 관계 속에서 공동의 책임을 갖고 의사결정을 하므로, 동료교사와 원장과의 관계

가 좋을수록 이직률이 감소하고 직무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나석희, 이현진, 2012; 이정희, 조성연, 2011). 또한, 원장, 동료와 가족의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보육교사들이 심리적 소진을 더 적게 경험하는데, 이는 자신을 가치 있는 인간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자아존중감이 발달하여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한종혜, 1996).

셋째, 낙관적 태도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불안에 민감하지 않은 유아교사는 새로운 경험에 개방적이고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여 중간 수준의 자아통제를 지니는 경향이 있다. 낙관성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어려운 상황에서 심리적인 고통을 적게 경험하고 보다 더 안정적이고 긍정적으로 상황에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cheier, Carver, & Bridges, 1994).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부딪혀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낙관성이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적응적이고 긍정적인 정서를 지니고 상황에 잘 대처한다(Scheier et al., 1994). 예비유아교사의 기질적 낙관성은 보통 이상으로 나타나 비교적 낙관적인 성향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자신의 삶에 대한 인지적 평가를 긍정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영신, 2012a).

넷째, 숙련된 표현력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보육교사들은 실제 느끼는 감정과 그러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갈등하고 있는데, 유아교육기관의 특성상 원장과 부모의 요구를 모두 만족스럽게 수용해야한다는 심리적·상황적 압박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김현주, 2005). 또한, 유아교사가 겪는 소진 수준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지만, 모든 교사들이 소진 상태를 견디지 못하고 이직이나 퇴직을 하는 것은 아니며, 높은 스트레스가 주어지더라도 자아탄력성으로 이를 회복하고 재정하는 교사들이 있다.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 중 숙련된 표현력이 보육교사의 심리적 소진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므로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소진이 낮아진다고 하였다(심순애, 2007). 또한, 긴장, 인내의 수준을 강화·약화시키는 조정능력이 높은 유아교사들은 낯선 상황에서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들에 유연하게 반응해 성공적인 적응을 할 수 있는 자아탄력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진희, 2010).

이와 같이 예비유아교사가 전문적 역량을 지닌 유아교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비유아교사의 자아탄력성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자아탄력성 연구들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은 희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예비유아교사들이 가

까운 시일 내 교사가 된다는 점에서, 예비유아교사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개인적 변인들이 유아교사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예비유아교사의 자아탄력성은 연구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C. 예비유아교사의 안녕감과 자아탄력성의 관계

삶에 대한 만족감을 의미하는 안녕감은 개인의 기질적 차원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인식된다. 연령에 따라 사회경험에 참여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연령에 따라 자아탄력성과 자기효능감이 다르게 정타하며(강영옥, 2011; 정재은, 정슬기, 권송이, 최혜린, 배윤진, 2011), 연령에 따라 나타나는 주관적 안녕감(김명소 외, 2001)과 심리적 안녕감(이영이, 노진숙, 윤영숙, 전은희, 2011)의 하위요인들이 나타나는 양상이 서로 다르다고 보았다. 또한, 교육수준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행복에 미치는 교육수준의 긍정적 효과가 남자에 비해 여자가 크다고 하였는데(Freudiger, 1979, 박영신, 2012b 재인용), 이는 유아교육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의 대부분이 여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예비유아교사는 교육실습을 통해 긍정적 경험이나 어려움을 경험하며(차영숙, 강민정, 유희정, 2011), 예비유아교사가 예상하고 있는 교직 유지 기간에 따라 회복탄력성이 다르게 나타났다고(권수현, 2011). 따라서 예비유아교사의 연령, 교육정도, 교육실습 경험, 교직 유지 예상기간의 개인적 변인에 따른 안녕감과 자아탄력성을 파악하는 것은 예비유아교사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안녕감의 특징과 가치는 개인이 다양한 비극적인 상황과 감정에 놓여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비관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며, 평정심을 잃지 않는 내적인 힘으로서 자아탄력성과도 맥을 같이한다. 이는 안녕감이 성격, 적응 등과 같은 심리학적 요인들과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며, 개인의 내적 심리 특성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구재선, 김의철, 2006). 일상에서 경험하는 안녕감이 긍정적인 삶의 질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자아탄력성과 같은 개개인이 가진 내적 특성, 강점 등에 주목하고 이를 계발시켜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자아탄력적인 사람은 긍정 정서를 활용하며, 긍정정서는 삶의 의미를 예측하므로(조은향, 2008), 자아탄력성과 삶의 의미가 높은 상관을 보인다.

다고 할 수 있다(김택호, 김재환, 2004).

또한, 자아탄력성의 특징과 가치는 예비유아교사가 자신의 삶에 대한 기대와 노력을 자발적으로 일으키며, 사회 속에서 다양한 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하는 삶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조경서, 남기원, 2011). 이러한 결과는 예비유아교사에게 긍정적 밑거름이 되어 삶 전체에 긍정의 선순환이 나타나 이후의 교사생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 정서는 안녕감으로 설명될 수 있으므로 자아탄력성과 안녕감은 상호보완적으로 삶에 대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형성하여 교사 역량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처럼 안녕감과 자아탄력성은 삶에 대한 긍정적 에너지가 되므로,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안녕감과 자아탄력성의 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자아탄력성 연구는 주로 스트레스, 심리적 소진, 정서노동과 같은 부정적 개념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또한, 박지혜, 이하나, 정현주, 이기학(2005)에 의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과 안녕감, 스트레스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안녕감과 자아탄력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예비유아교사는 교사양성과정을 통해 형성된 신념이 유아교사로서의 교직관을 형성한다고 볼 때, 예비유아교사의 긍정적 특성을 파악 할 수 있기 때문에 안녕감과 탄력적 자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예비유아교사의 안녕감과 자아탄력성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으므로 관련 연구를 탐색 해 보았다. 먼저, 전체적인 자아탄력성과 안녕감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신에 대해 폭넓은 이해와 자신감을 가지고 대인관계를 효율적으로 이끌어가는 탄력적인 유아교사가 성취감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자아탄력성은 안녕감에 직·간접적 효과를 주는 주요 변인으로,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키는 것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심리적 안녕감을 높일 수 있다(이옥형, 2012). 그리고 위기나 상황에 따라 적절한 통제력과 적응력을 보이는 자아탄력성은 삶에서 긍정 정서와 만족감을 증가시켜 부정 정서를 감소시키므로(성주희, 홍혜영, 2012), 이는 주관적 안녕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즉, 행복을 느끼는 유아교사가 자신의 직무에 만족하고 높은 성취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이경민, 최윤정, 이경애, 2009; 이경애, 이경민, 2010).

자신감과 안녕감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교사효능감이 높을수록 자기 조절효능감이 높게 나타나 스스로를 잘 파악하여 자신의 장단점을 상황에 맞게 활용 가능하므로 심리적 안녕감의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박수진, 2011). 또한, 유아교사의 안녕감과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을수록 교사효능감이 높게 나타나, 이는 교사-유아의 상호작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곽희경, 2011). 즉,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교수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높고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자아상과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느낌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 높아진다(김혜순, 2011; 김지영, 2010).

대인관계와 안녕감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대인관계가 원만한 유아교사일수록 동료의 지지를 더 많이 받으므로, 건강한 대인관계 및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심순애, 2007). 특히 유아교사 집단은 타인에게 주의를 기울이며 개인 간 상호의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성이 반영되는데, 이러한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긍정적인 대인관계가 개인의 삶의 질을 예측하는데 유의한 변인이 된다(김명소 외, 2001).

낙관적 태도와 안녕감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유아교사가 지닌 낙관적 태도는 효과적인 감정조절을 유도하고, 교사의 긍정적 감정과 정서적 만족과 직결되어 교사가 주관적·심리적 안녕감이 높게 나타난다(배성희, 2009; 심순애, 2007). 그리고 낙관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이 높게 나타났고, 스트레스를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박영신, 2012a),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낙관성 수준이 높을수록 더 높은 심리적 안녕감을 보고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김민정, 이희경, 2006). 즉, 낙관적인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회피하는 정서중심적인 대처를 하기보다 현실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문제해결중심적인 효과적 대처를 하는 경향이 강하다(이영이, 노진숙, 윤영숙, 전은희, 2011).

숙련된 표현력과 안녕감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교사의 직무스트레스는 자아탄력성과 부적 상관이 있으며(한인자, 2005), 숙련된 표현력을 잘 하는 유아교사가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므로 숙련된 표현력과 정서노동은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인다(김윤경, 2011). 이는 교사가 정서조절을 효과적으로 할수록 직무스트레스가 감소함을 의미하므로(임지윤, 2011), 자아탄력성이 높은 유아교사는 자신의 감정 통제를 잘하고 자신의 상황에 대해 낙천적이며 대인

관계에서도 원만함을 유지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안녕감과 정적 상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정적 정서조절양식은 낮은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되며, 그 중 회피분산적 양식의 경우 심리적 안녕감과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유아교사의 자아탄력성이 심리적 소진 경험을 완화하거나 극복하는 효과가 있음을 밝힌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이 높은 교사일수록 심리적 소진 수준이 낮다(심순애, 2007). 따라서 자아탄력성이 높은 교사는 문제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최선의 행동전략을 모색하여 실천함으로써 심리적 소진 경험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안녕감은 이후 교사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유아교사의 안녕감은 고정적이지 않으므로, 대학 입학 후에 경험하는 행복에 대한 예비유아교사의 인식에 관한 연구는 유아의 행복을 다원적이고 통합적인 방법으로 이해하는데 필요하다. 즉 유아의 행복지수 측정도구의 범주나 하위요인으로 구성될 수 있는 개념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유아에게 가장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유아교사의 마음에 내재된 생각을 확인하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관련 연구에서 예비유아교사의 주관적 안녕감과 자아존중감 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고(김정은, 2010), 심리적 소진(이지혜, 2010)과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심리적 안녕감과 낙관성(김민정, 이희경, 2006), 교사효능감(박수진, 2011), 교사헌신(이미란, 김정원, 2011)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고, 직무스트레스(권연희, 2010)와는 부적인 상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은 예비유아교사의 긍정적·부정적 정서 그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주관적 및 심리적 안녕감과 자아존중감, 심리적 소진, 낙관성, 교사효능감, 교사헌신, 직무스트레스를 통해 살펴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자아탄력성 전체와 그 하위요인들이 예비유아교사의 안녕감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도 부분적으로만 알 수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을 담당할 예비교사의 자질로 볼 수 있는 안녕감과 자아탄력성 향상을 위해 예비유아교사의 전반적인 양상을 알아보고 변인에 따른 안녕감과 자아탄력성을 밝히고, 그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아교사 양성과정에서 행복하고 탄력적인 자아상을 지닌 유아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기초를 마련 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연구방법

A.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에 소재한 유아교육과 졸업 예정인 예비유아교사 21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예비유아교사의 개인 배경은 <표-1>에 제시되어 있다.

<표-1> 연구대상 예비유아교사의 일반적 배경 N=213

변 인	구 분	빈 도(명)	백분율(%)
연 령	22세 미만	167	78.4
	22세 이상	46	21.6
학 령	3년제 대학	131	61.5
	4년제 대학	82	38.5
	5년 이하	53	24.9
교직유지 예상기간	5년 초과 10년 이하	85	39.9
	10년 초과	73	34.3
	무응답	2	.9

<표-1>에 따르면, 연구대상 예비유아교사의 연령은 19세에서 37세로 평균 21.03(SD=2.44)이며, 22세 미만의 교사가 78.4%로 가장 많았고, 교육정도는 4년제 대학(38.5%) 3년제 대학(61.5%)에 재학 중인 예비유아교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유아교사의 교직 유지 예상기간은 5년 초과 10년 이하가 39.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B.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주관적 안녕감 및 심리적 안녕감과 자아탄력성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예비유아교사의 개인적 배경을 묻는 부분, 자신의 주관적 안녕감 및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부분, 그리고 자신의 자아탄력성을 측정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안녕감

1) 주관적 안녕감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주관적 안녕감을 알아보기 위해 Diener(1984)가 행복의 인지적 요소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주관적 삶의 요소(Subjective Well-Being: SWB)’를 바탕으로 서은국, 구재선(2011)이 한국인의 정서를 반영하여 개발한 ‘단축형 행복 척도(Concise Measure of Subjective Well-Being: COMOSWB)’를 사용하였다.

주관적 안녕감 척도는 총 9문항으로, 삶의 만족, 긍정 정서, 부정 정서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서은국, 구재선, 2011). 각 문항에 대해 Likert 7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매우 그렇다”는 7점으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주관적 안녕감 전체 점수는 삶의 만족 점수와 정적 정서 점수의 합에 부정 정서의 점수를 뺀 총점으로 제시하였으며, 각 하위요인별 점수는 평균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주관적 안녕감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주관적 안녕감 척도에 대한 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는 .70이었으며, 하위요인별 문항수와 문항번호, Cronbach's α 는 <표-2>에 제시되어 있다.

<표-2> 주관적 안녕감 측정 도구의 구성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번호	신뢰도 (Cronbach's α)
삶의 만족(a)	3	1, 2, 3	.82
긍정 정서(b)	3	4, 5, 7	.88
부정 정서(c)	3	6, 8, 9	.83
전체(a+b-c)	9		.70

2) 심리적 안녕감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심리적 안녕감을 알아보기 위해 Ryff(1989)가 긍정적 정신건강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심리적 안녕감 척도(Psychological Well-Being: PWB)’를 바탕으로 박신영(2010)이 번안·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심리적 안녕감 척도는 총 54문항으로, 자율성, 환경통제력, 개인적 성장, 긍정적 대인관계, 삶의 목적, 자아수용의 6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Likert 6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매우 그렇다”는 6점으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심리적 안녕감 전체와 각 하위요인별 총점을 문항수로 나누어 6점을 만점으로 환산하여 제시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주관적 안녕감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심리적 안녕감 척도에 대한 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는 .92였으며, 하위요인별 문항수와 문항번호, Cronbach's α 는 <표-3>에 제시되어 있다.

<표-3> 심리적 안녕감 측정 도구의 구성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번호										신뢰도 (Cronbach's α)
자율성	9	1	17	13*	19	25*	31	37*	43*	49	.73	
환경통제력	9	2	8*	14*	20	26*	32	38	44*	50	.68	
개인적 성장	9	3*	9*	15	21*	27	33*	39	45*	51*	.66	
긍정적 대인관계	9	4	10*	16*	22	28*	34*	40	46*	52	.77	
삶의 목적	9	5*	11*	17*	23*	29*	35	41	47	53*	.79	
자아수용	9	6	12	18*	24	31	36*	42*	48	54	.78	
전체	54											.92

*은 역채점 문항임

2. 자아탄력성

예비유아교사의 자아탄력성을 알아보기 위해 Block(1978)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Ego-Resilience Scale: ERS)’를 바탕으로 Klohenn(1996)이 최종적으로 29개의 항목으로 추려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를 박현진(1997)이 변안한 ‘자아탄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아탄력성 척도는 총 29문항으로, 자신감, 대인관계 효율성, 낙관적 태도, 숙련된 표현력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매우 그렇다”는 5점으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자아탄력성 전체와 각 하위요인별 총점을 문항수로 나누어 5점을 만점으로 환산하여 제시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예비유아교사의 자아탄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자아탄력성 척도에 대한 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는 .92였으며, 하위요인별 문항수와 문항번호, Cronbach's α 는 <표-4>에 제시되어 있다.

<표-4> 자아탄력성 측정 도구의 구성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번호	신뢰도 (Cronbach's α)
자신감	9	7* 10 11 12 13 22 23 24 2*	.87
대인관계 효율성	8	3* 4* 5* 8* 9* 14 15 21	.86
낙관적 태도	10	1* 2* 6* 16 17 18 20 25 28 29	.75
숙련된 표현력	2	19 27	.78
전체	29		.92

*은 역채점 문항임

C. 연구절차

1. 예비연구

본 연구를 실행하기 전, 설문지 문항의 적절성과 문제점, 그리고 설문지 작성 소요시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유아교육과에 재학 중인 예비유아교사 16명을 대상으로 예비연구를 실시하였다. 예비연구의 기간은 2012년 5월 1일부터 2일까지였으며, 참여한 예비유아교사 중 전문대생은 3명, 4년제대생은 11명, 대학원생은 2명이었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10분 내외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문항들은 검토·수정하였다(예: 나는 내 삶의 개인적 측면에 대해서 만족한다 → 나는 내 삶의 개인적 측면(개인적 성취, 성격, 건강 등)에 대해서 만족한다). 한편, Oster(1989), Preston & Cloman(2000), Weng(2004)에 의하면 문항에 대한 반응범주의 수가 증가할수록 척도의 신뢰도는 증가하지만, 반응범주의 수가 증가할수록 수검자들이 응답에 대해 가지는 부담감이 커질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양소오, 2010), 예비연구를 통해 Likert 7점 척도로 평정하는 것이 어려운지 파악하였다. 그 결과 Likert 7점 척도 사용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본 연구

본 연구는 서울 지역의 3·4년제 대학 5개교에 재학 중인 유아교육과 학생 21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012년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선정된 연구대상이 속한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219명의 유아교육과에 재학생에게 주관적 안녕감 및 심리적 안녕감과 자아탄력성 관련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그 중 217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어 99%의 회수율을 보였다.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고, 주관적 안녕감 및 심리적 안녕감과 자아탄력성 지수의 측정 결과를 알기 원하는 예비유아교사들에게 전자메일로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설문조사의 목적과 방법 및 유의사항을 안내한 후 설문에 임하도록 하였으며, 각 문항에 대해 정답과 오답이 없음을 주지시켜 가능한 한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할 것을 부탁하였다. 최종적으로 회수된 설문지를 검토하는 중에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은 설문지 4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총 213부의 설문지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D. 자료분석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과 주요 변인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을 산출하였고, 연구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각 연구문제에 따른 자료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번과 2번에서는 먼저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주관적 안녕감 및 심리적 안녕감과 자아탄력성이 전반적으로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각각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다음으로 예비유아교사의 개인·기관 변인에 따라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주관적 안녕감 및 심리적 안녕감과 자아탄력성이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Duncan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3번에서는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주관적 안녕감 및 심리적 안녕감과 자아탄력성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A.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안녕감

1.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주관적 안녕감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주관적 안녕감을 알아보기 위해 주관적 안녕감 전체와 하위요인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결과는 <표-5>에 제시되어 있다.

<표-5>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주관적 안녕감의 평균과 표준편차 (N=213)

변인	구분	평균	표준편차
주관적 안녕감	삶의 만족(a)	5.25	1.00
	긍정 정서(b)	4.70	1.10
	부정 정서(c)	4.10	1.23
전체(a+b-c)		5.96	2.57

<표-5>에 따르면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주관적 안녕감의 평균은 5.96(SD=2.57)이며, 주관적 안녕감의 하위요인 중 예비유아교사의 인식이 가장 높은 것은 5.25(SD=1.00)의 삶의 만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예비유아교사가 높게 인식하는 하위요인은 긍정 정서로 4.70(SD=1.10)이고, 부정 정서는 4.10(SD=1.23)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즉, 예비유아교사의 주관적 안녕감은 보통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며, 그 중 삶의 만족이 가장 높고 부정 정서가 가장 낮다고 볼 수 있다.

가. 연령에 따른 주관적 안녕감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주관적 안녕감이 예비유아교사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예비유아교사의 연령을 22세 미만, 22세 이상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주관적 안녕감 전체와 하위요인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

아보고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6>에 제시되어 있다.

주관적안녕감	연령		M(SD)	t
	22세 미만 (N=167)	22세 이상 (N=46)		
삶의 만족(a)	5.28(.97)	5.18(1.13)		.56
긍정 정서(b)	4.79(1.09)	4.83(1.18)		-.19
부정 정서(c)	4.09(1.21)	4.12(1.32)		-.12
전체(a+b-c)	5.98(2.56)	5.89(2.66)		.19

<표-6>에 따르면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주관적 안녕감은 연령이 22세 미만인 집단이 22세 이상인 집단보다 주관적 안녕감 전체와 삶의 만족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으며,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에서는 22세 이상인 집단이 22세 미만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주관적 안녕감 전체와 하위요인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주관적 안녕감은 연령에 관계없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나. 교육정도에 따른 주관적 안녕감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주관적 안녕감이 예비유아교사의 교육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예비유아교사의 교육정도를 3년제 대학교인 집단과 4년제 대학교인 집단으로 구분하여, 주관적 안녕감 전체와 하위요인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보고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7>에 제시되어 있다.

주관적안녕감	교육정도		M(SD)
	3년제 대학교 (N=131)	4년제 대학교 (N=82)	
삶의 만족(a)	5.15(1.01)	5.44(.96)	-2.11*
긍정 정서(b)	4.67(1.15)	5.00(.99)	-2.17*
부정 정서(c)	4.13(1.23)	4.05(1.23)	.45
전체(a+b-c)	5.69(2.59)	6.40(2.51)	-1.97*

* $p < .05$

<표-7>에 따르면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주관적 안녕감은 4년제 대학교 집단이 3년제 대학교 집단보다 주관적 안녕감 전체와 삶의 만족, 긍정 정서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부정 정서에서는 3년제 대학교 집단이 4년제 대학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주관적 안녕감 전체와 하위요인 중 삶의 만족과 긍정 정서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4년제 대학교 집단인 예비유아교사는 3년제 대학교 예비유아교사보다 주관적 안녕감 전체와 삶의 만족, 긍정 정서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다. 교직 유지 예상기간에 따른 주관적 안녕감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주관적 안녕감이 예비유아교사의 교직 유지 예상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예비유아교사가 예상하는 교직 유지 예상기간을 5년 이하, 5년 초과 10년 이하, 10년 초과로 구분하여, 주관적 안녕감 전체와 하위요인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보고 일원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8>에 제시되어 있다.

주관적안녕감	교직 유지 예상기간			M(SD)
	5년 이하 (N=53)	5년 초과 10년 이하 (N=85)	10년 초과 (N=73)	
삶의 만족(a)	5.03(1.25) ^a	5.16(.94) ^a	5.55(.82) ^b	4.97**
긍정 정서(b)	4.53(1.31)	4.84(1.07)	4.95(.97)	2.25
부정 정서(c)	4.08(1.56)	4.15(1.12)	4.05(1.10)	.21
전체(a+b-c)	5.49(3.28)	5.85(2.49)	6.45(2.02)	2.28

** $p < .01$; ^{a, b} 다른 문자집단끼리 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냄.

<표-8>에 따르면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주관적 안녕감은 교직 유지 예상기간이 10년 초과인 집단이 주관적 안녕감 전체와 삶의 만족, 긍정 정서에 대해 가장 높은 인식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교직 유지 예상기간이 5년 초과 10년 이하인 예비유아교사 집단이 높았고, 5년 이하인 예비유아교사 집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삶의 만족과 긍정 정서에 대해 교직 유지 예상기간이 10년 초과인 예비유아교사 집단이 가장 높은 인식을 보인 반면, 부정 정서에 대한 인식은 교직 유지 예상기간이 10년 초과의 예비유아교사 집단이 가장 낮았다.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관적 안녕감 하위요인 중 삶의 만족($F=4.97$, $p < .05$)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삶의 만족은 교직 유지 예상기간이 10년 초과인 예비유아교사 집단과 10년 이하인 예비유아교사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교직 유지 예상기간이 10년 초과인 예비유아교사는 10년 이하인 예비유아교사보다 삶의 만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2.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심리적 안녕감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심리적 안녕감을 알아보기 위해 심리적 안녕감 전체와 하위요인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결과는 <표-9>에 제시되어 있다.

<표-9>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심리적 안녕감의 평균과 표준편차 (N=213)

변인	구분	평균	표준편차
심리적 안녕감	자율성	3.80	.54
	환경통제력	3.95	.56
	개인적성장	4.13	.60
	긍정적대인관계	4.53	.66
	삶의목적	4.30	.61
	자기수용	4.13	.71
	전체	4.13	.49

<표-9>에 따르면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심리적 안녕감의 평균은 4.13(SD=.49)이며,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 중 예비유아교사의 인식이 가장 높은 것은 4.53(SD=.66)의 긍정적 대인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예비유아교사가 높게 인식하는 하위요인은 삶의 목적으로 4.30(SD=.61)이고, 이어서 자기수용 4.13(SD=.71), 개인적 성장 4.13(SD=.60), 환경통제력 3.95(SD=.56) 순으로 높게 인식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율성이 3.80(SD=.54)으로 예비유아교사의 인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심리적 안녕감은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며, 그 중 긍정적 대인관계가 가장 높고, 자율성이 가장 낮다고 볼 수 있다.

가. 연령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심리적 안녕감이 예비유아교사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예비유아교사의 연령을 22세 미만, 22세 이상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심리적 안녕감 전체와 하위요인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보고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10>에 제시되어 있다.

심리적안녕감	연령		M(SD)
	22세 미만 (N=167)	22세 이상 (N=46)	
자율성	3.82(.54)	3.37(.54)	.92
환경통제력	3.97(.54)	3.85(.62)	1.40
개인적성장	4.16(.60)	4.01(.60)	1.44
긍정적대인관계	4.61(.62)	4.21(.69)	3.82**
삶의목적	4.31(.61)	4.24(.64)	.72
자기수용	4.18(.73)	3.93(.62)	2.06*
전체	4.17(.48)	4.00(.52)	1.98*

* $p<.05$, ** $p<.01$

<표-10>에 따르면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심리적 안녕감은 연령이 22세 미만인 집단이 22세 이상인 집단보다 심리적 안녕감 전체와 모든 하위요인에 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심리적 안녕감 전체($t=1.98$, $p<.05$)와 하위요인 중 긍정적 대인관계 ($t=3.82$, $p<.01$), 자기수용($t=2.06$,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22세 미만인 예비유아교사 집단이 22세 이상인 예비유아교사 집단보다 심리적 안녕감 전체와 긍정적 대인관계, 자기수용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나. 교육정도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심리적 안녕감이 예비유아교사의 교육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예비유아교사의 교육정도를 3년제 대학교인 집단과 4년제 대학교인 집단으로 구분하여, 심리적 안녕감 전체와 하위요인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보고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11>에 제시되어 있다.

심리적안녕감	교육정도		M(SD)
	3년제 대학교 (N=131)	4년제 대학교 (N=82)	
자율성	3.83(.58)	3.76(.46)	.94
환경통제력	3.96(.58)	3.94(.54)	.24
개인적성장	4.15(.63)	4.10(.56)	.60
긍정적대인관계	4.57(.66)	4.46(.66)	1.21
삶의목적	4.35(.64)	4.22(.57)	1.50
자기수용	4.12(.74)	4.14(.67)	-.21
전체	4.15(.49)	4.09(.49)	.88

<표-11>에 따르면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심리적 안녕감은 3년제 대학교 집단이 4년제 대학교 집단보다 심리적 안녕감 전체와 자율성, 환경통제력, 개인적 성장, 긍정적 대인관계, 삶의 목적에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자기 수용에서는 4년제 대학교 집단이 3년제 대학교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심리적 안녕감과 하위요인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심리적 안녕감은 교육정도에 관계없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다. 교직 유지 예상기간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심리적 안녕감이 예비유아교사의 교직 유지 예상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예비유아교사가 예상하는 교직 유지 예상기간을 5년 이하, 5년 초과 10년 이하, 10년 초과로 집단으로 구분하여, 심리적 안녕감 전체와 하위요인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보고 일원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12>에 제시되어 있다.

<표-12> 교직 유지 예상기간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 M(SD)

심리적안녕감	교직 유지 예상기간			F
	5년 이하 (N=53)	5년 초과 10년 이하 (N=85)	10년 초과 (N=73)	
자율성	3.67(.60) ^a	3.73(.49) ^a	3.96(.50) ^b	5.89**
환경통제력	3.76(.57) ^a	3.88(.51) ^a	4.15(.57) ^b	8.81**
개인적성장	4.09(.57)	4.02(.60) ^a	4.29(.62) ^b	3.80*
긍정적대인관계	4.38(.77)	4.49(.66)	4.66(.54)	2.96
삶의목적	4.22(.66)	4.26(.59)	4.40(.61)	1.69
자기수용	3.80(.76) ^a	4.11(.67) ^b	4.36(.65) ^c	10.03**
전체	3.97(.55) ^a	4.07(.46) ^a	4.30(.43) ^b	7.81**

* $p < .05$, ** $p < .01$; a, b, c 다른 문자집단끼리 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냄.

<표-12>에 따르면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심리적 안녕감은 교직 유지 예상기간이 10년 초과인 집단이 심리적 안녕감 전체와 모든 하위요인에 대해 가장 높은 인식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교직 유지 예상기간이 5년 초과 10년 이하인 예비유아교사 집단이 높았고, 5년 이하인 예비유아교사 집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심리적 안녕감 전체($F=7.81$, $p < .01$)와 자율성($F=5.89$, $p < .01$), 환경통제력($F=8.81$, $p < .01$), 개인적 성장($F=3.80$, $p < .05$), 자기수용($F=10.03$, $p < .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심리적 안녕감 전체와 자율성, 환경통제력은 교직 유지 예상기간이 10년 이하인 집단과 10년 초과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개인적 성장은 5년 초과 10년 이하 집단과 10년 초과인 집단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자기수용은 모든 예비유아교사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교직 유지 예상기간이 10년 초과인 예비유아교사 집단은 10년 이하인 예비유아교사 집단보다 심리적 안녕감이 높게 나타났고, 그 중 자율성, 환경통제력, 개인적 성장, 자기수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B. 예비유아교사의 자아탄력성

예비유아교사의 자아탄력성 점수를 알아보기 위해 자아탄력성 전체와 하위 요인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결과는 다음 <표-13>와 같다.

<표-13> 예비유아교사의 자아탄력성의 평균과 표준편차 (N=213)

구 분	평균	표준편차
자신감	3.53	.64
대인관계 효율성	3.46	.74
낙관적 태도	3.80	.63
숙련된 표현력	3.02	1.00
전체	3.57	.56

<표-13>에 따르면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자아탄력성의 평균은 3.57(SD=.56)이며, 자아탄력성 하위요인 중 예비유아교사의 인식이 가장 높은 것은 3.80(SD=.63)의 낙관적 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예비유아교사가 높게 인식하는 하위요인은 자신감으로 3.53(SD=.64), 이어서 대인관계 효율성 3.46(SD=.74) 순으로 높게 인식하였다. 마지막으로 숙련된 표현력이 3.02(SD=1.00)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예비유아교사의 자아탄력성은 보통보다 높고, 그 중 낙관적 태도가 가장 높은 반면 숙련된 표현력이 가장 낮다고 볼 수 있다.

가. 연령에 따른 자아탄력성

예비유아교사의 자아탄력성이 예비유아교사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예비유아교사의 연령을 22세 미만, 22세 이상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자아탄력성 전체와 하위요인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보고 독립표본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14>에 제시되어 있다.

자아탄력성	연령		M(SD)
	22세 미만 (N=167)	22세 이상 (N=46)	
자신감	3.54(.65)	3.50(.58)	3.52
대인관계 효율성	3.49(.75)	3.36(.70)	1.08
낙관적 태도	3.82(.61)	3.70(.67)	1.23
숙련된 표현력	3.04(1.02)	2.92(.95)	.72
전체	3.59(.56)	3.49(.57)	1.07

<표-14>에 따르면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자아탄력성은 연령이 22세 미만인 집단이 22세 이상인 집단보다 자아탄력성 전체와 모든 하위요인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자아탄력성 전체와 하위요인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자아탄력성은 연령에 관계없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나. 교육정도에 따른 자아탄력성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자아탄력성이 예비유아교사의 교육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예비유아교사의 교육정도를 3년제 대학교인 집단과 4년제 대학교인 집단으로 구분하여, 자아탄력성 전체와 하위요인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보고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15>에 제시되어 있다.

자아탄력성	교육정도		M(SD)
	3년제 대학교 (N=131)	4년제 대학교 (N=82)	
자신감	3.55(.64)	3.50(.64)	.55
대인관계 효율성	3.45(.79)	3.49(.67)	-.42*
낙관적 태도	3.81(.66)	3.77(.58)	.54
숙련된 표현력	3.05(.98)	2.97(1.04)	.57
전체	3.58(.57)	3.55(.55)	.29

* $p < .05$

<표-15>에 따르면 예비유아교사의 자아탄력성은 3년제 대학교 집단이 4년제 대학교 집단보다 자아탄력성 전체와 자신감, 낙관적 태도, 숙련된 표현력에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으며, 대인관계 효율성에서는 4년제 대학교 집단이 3년제 대학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t검증을 실시한 결과, 대인관계 효율성($t = -.42, p < .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4년제 대학교의 예비유아교사가 3년제 대학교의 예비유아교사보다 높은 대인관계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교직 유지 예상기간에 따른 자아탄력성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자아탄력성이 예비유아교사의 교직 유지 예상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예비유아교사가 예상하는 교직 유지 예상기간을 5년 이하, 5년 초과 10년 이하, 10년 초과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자아탄력성 전체와 하위요인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보고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16>에 제시되어 있다.

<표-16> 교직 유지 예상기간에 따른 자아탄력성 M(SD)

자아탄력성	교직 유지 예상기간			F
	5년 이하 (N=53)	5년 초과 10년 이하 (N=85)	10년 초과 (N=73)	
자신감	3.44(.61)	3.50(.71)	3.62(.54)	1.37
대인관계 효율성	3.48(.80)	3.35(.68)	3.56(.75)	1.58
낙관적 태도	3.48(.70) ^a	3.84(.58)	3.96(.54) ^b	10.42**
숙련된 표현력	3.16(.98)	3.00(1.13)	2.95(.87)	.70
전체	3.44(.63)	3.54(.55)	3.67(.50)	2.68

** $p < .01$; ^{a, b} 다른 문자집단끼리 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냄.

<표-16>에 따르면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자아탄력성은 교직 유지 예상기간이 10년 초과인 집단이 자아탄력성 전체와 자신감, 대인관계 효율성, 낙관적 태도에서 가장 높은 인식을 보였으며, 숙련된 표현력에서는 5년 이하인 집단이 가장 높은 인식을 보였다.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낙관적 태도($F=10.42$, $p < .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낙관적 태도에서 교직 유지 예상기간이 5년 이하인 집단과 10년 초과인 예비유아교사 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교직 유지 예상기간이 10년 초과인 예비유아교사는 5년 이하인 예비유아교사에 비해 자아탄력성이 높게 나타났고, 그 중 낙관적 태도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C.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안녕감과 자아탄력성의 관계

1.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주관적 안녕감과 자아탄력성의 관계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한 주관적 안녕감과 자아탄력성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17>에 제시되어 있다.

<표-17>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한 주관적 안녕감과 자아탄력성의 상관관계

주관적 안녕감	자아탄력성	자신감	대인관계 효율성	낙관적 태도	숙련된 표현력	전체
삶의 만족(a)		.55	.47**	.64**	.26**	.64**
긍정 정서(b)		.37**	.31	.55**	.24**	.48**
부정 정서(c)		-.48**	-.37**	-.50	-.34**	-.54**
전체		.60**	.49**	.72**	.36	.71**

** $p < .01$

<표-17>에 따르면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주관적 안녕감 전체 및 하위요인과 자아탄력성 전체 및 하위요인 간에 전반적으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안녕감 전체는 자아탄력성 전체($r=.71, p<.01$)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주관적 안녕감 전체와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과의 관계를 상관 계수가 큰 순서대로 살펴보면, 낙관적 태도($r=.72, p<.01$), 자신감($r=.60, p<.01$), 대인관계 효율성($r=.49, p<.01$), 숙련된 표현력($r=.36, p<.01$)의 순서로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관적 안녕감의 삶의 만족과 자아탄력성의 낙관적 태도($r=.64, p<.01$) 사이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 전체와 주관적 안녕감 하위요인의 관계를 상관 계수가 큰 순서대로 살펴보면, 삶의 만족($r=.64, p<.01$), 긍정 정서($r=.48, p<.01$)의 순서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정 정서($r=-.54, p<.01$)는 자아탄력성 전체 및 모든 하위요인 간에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예비유아교사의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은 높고, 예비유아교사의 주관적 안녕감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예비유아교사의 자신감, 대인관계 효율성, 낙관적 태도, 숙련된 표현력이 긍정적일수록 예비유아교사의 주관적 안녕감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예비유아교사의 주관적 안녕감 중 삶의 만족, 긍정 정서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부정 정서가 낮을수록 자아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예비유아교사가 낙관적 태도를 지닐수록 삶의 만족이 높고, 예비유아교사의 주관적 안녕감 중 삶의 만족이 높을수록 낙관적 태도를 지니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2.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심리적 안녕감과 자아탄력성의 관계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한 심리적 안녕감과 자아탄력성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18>에 제시되어 있다.

<표-18>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한 심리적 안녕감과 자아탄력성의 상관관계

심리적 안녕감	자아탄력성	자신감	대인관계 효율성	낙관적 태도	숙련된 표현력	전체
	자율성	.62**	.56**	.52**	.13	.64**
	환경통제력	.71**	.55**	.66**	.36**	.75**
	개인적성장	.51**	.56**	.53**	.06	.59**
	긍정적대인관계	.53**	.57**	.64**	.18**	.67**
	삶의목적	.51**	.43**	.54**	.10	.55**
	자기수용	.68**	.55**	.74**	.32**	.76**
	전체	.75**	.67**	.77**	.27**	.84**

** $p < .01$

<표-18>에 따르면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심리적 안녕감 전체 및 하위요인과 자아탄력성 전체 및 하위요인 간에 전반적으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안녕감 전체는 자아탄력성 전체($r = .84, p < .01$)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심리적 안녕감 전체와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과의 관계를 상관 계수가 큰 순서대로 살펴보면, 낙관적 태도($r = .77, p < .01$), 자신감($r = .75, p < .01$), 대인관계 효율성($r = .67, p < .01$)의 순서로 정적인 상관이 있고, 숙련된 표현력($r = .27, p < .01$)과는 약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리적 안녕감의 자기수용과 자아탄력성의 낙관적 태도($r = .74, p < .01$) 사이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 전체와 심리적 안녕감 하위요인의 관계를 상관 계수가 큰 순서대로 살펴보면, 자기수용($r = .76, p < .01$), 환경통제력($r = .75, p < .01$), 긍정적 대인관계($r = .67, p < .01$), 자율성($r = .64, p < .01$) 개인적 성장($r = .59, p < .01$), 삶의 목적($r = .55, p < .01$)의 순서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율성,

개인적 성장, 삶의 목적은 자아탄력성의 숙련된 표현력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예비유아교사의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은 높고, 예비유아교사의 심리적 안녕감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예비유아교사의 자신감, 대인관계 효율성, 낙관적 태도, 숙련된 표현력이 긍정적일수록 예비유아교사의 심리적 안녕감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예비유아교사의 심리적 안녕감 중 자율성, 환경 통제력, 개인적 성장, 긍정적 대인관계, 삶의 목적, 자기수용이 높을수록 개인의 자아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예비유아교사가 자신감을 지닐수록 환경 통제력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예비유아교사의 심리적 안녕감 중 환경 통제력이 높을수록 자신감을 지니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A. 논의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안녕감과 자아탄력성의 전반적 양상과 예비유아교사의 변인에 따라 안녕감과 자아탄력성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안녕감과 자아탄력성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문제별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안녕감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전반적인 주관적 안녕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주관적 안녕감 측정 도구를 사용한 연구결과를 비교해 보면, 국내 대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서은국, 구재선(2011)의 연구에서 삶의 만족이 가장 높고, 이어 긍정 정서, 부정 정서 순서로 나타난 결과가 유사하다. 한편 박영신(2012b)이 대구·경북지역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 비교하였을 때는 다소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즉, 예비유아교사는 비교적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하면서 긍정적인 정서 상태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변인에 따른 예비유아교사의 주관적 안녕감과 하위요인에 대해 정리 및 논의 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유아교사의 교육정도에 따른 주관적 안녕감은 전체와 하위요인 중 삶의 만족, 긍정 정서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4년제 대학교 학생이 3년제 대학교 학생보다 높은 주관적 안녕감, 삶의 만족, 긍정 정서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전문대학에 비해 4년제 대학의 유아교육과에 재학 중인 예비유아교사들이 비교적 낙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자신의 삶에 만족하면서 긍정적인 정서 상태를 가진다는 박영신(2012b)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유아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삶에서 보다 긍정적인 정서를 빈번하게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둘째, 예비유아교사의 교직 유지 예상기간에 따른 주관적 안녕감은 하위요

인 중 삶의 만족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교직 유지 예상기간이 10년 초과인 집단이 10년 이하인 집단보다 삶의 만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교사의 발달단계에 따라 경력이 많은 교사들이 경력이 적은 교사들에 비해 직무만족에 대해 높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서연주, 2007), 교사가 자각하는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예비유아교사가 미래의 직업인 유아교사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를 가지고 현재 삶에 대한 안녕감을 지닐 수 있도록 단편적인 교육과정이 아닌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종합해보면,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주관적 안녕감은 예비유아교사의 변인에 다소 적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인 중에서 교육정도, 교직 유지 예상기간에서 약간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관적 안녕감 하위요인 중에서 삶의 만족이 다른 하위요인들에 비해 예비유아교사의 변인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전반적인 심리적 안녕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심리적 안녕감 측정 도구를 사용한 연구결과를 비교해 보면, 유현정(2011) 연구의 전문대학 예비유아교사 1·2학년 학생들 보다는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서울지역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한 박신영(2010)의 연구 중 심리적 안녕감 연구결과, 서울지역 영유아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이미란, 김정원(2011)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교사를 대상으로 개인적 자아에 관한 안녕감 인식 정도의 수준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권혁규, 2003)와 대학생이 지각한 행복 수준이 평균 이상으로 나타나 행복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연구결과(서하진, 2009)도 맥을 같이한다. 다른 연구들(신경숙, 2009; 김경순, 김정남, 박원모, 천성문, 2006)에서도 긍정적 대인관계가 두 번째로 높은 하위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하위요인과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예비유아교사의 자율성은 다른 하위요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미란, 김정원, 2011)와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권연희, 2010; 박수진, 2011; 박종흡, 신남철, 2002; 이지혜, 2010)와 맥을 같이한다. 자율성이 공통적으로 가장 낮은 이유는 교사 집단이 개인 간 상호 의존을 강조하고, 개인의 주관보다 집단의 규칙이나 규범을 우선시하는 집단주의 문화 특성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변인에 따른 예비유아교사의 심리적 안녕감과 하위요인에 대해 정리 및 논의 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유아교사의 연령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은 전체와 하위요인 중 긍정적 대인관계와 자기수용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연령이 22세 미만인 예비유아교사는 22세 이상인 예비유아교사보다 높은 심리적 안녕감, 긍정적 대인관계, 자기수용을 가지고 있었다. 연령이 높은 예비유아교사들은 타 전공을 거쳤거나 사회생활을 한 후 다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자 입학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권수현, 2011). 따라서 이들은 유아교육에 대한 높은 학구열과 신념을 가지고 있으므로 높은 심리적 안녕감을 높게 인식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긍정적 대인관계와 자율성 차원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는 차경호(1999)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여자의 경우 남자와 달리 대인관계가 심리적 안녕감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한 김경순 외(2006)의 연구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예비유아교사들은 대학생의 신분으로 대부분 가족주의와 집단주의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이며, 우리나라에서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여자아이에게 대인관계의 발달을 더 강조하고 개인주의나 자율성의 발달을 덜 강조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예비유아교사의 교직 유지 예상기간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은 전체와 자율성, 환경 통제력, 개인적 성장, 자기수용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교직 유지 예상기간이 10년 초과인 집단이 10년 이하인 집단 보다 심리적 안녕감 전체와 자율성, 환경 통제력이 높게 나타났고, 10년 초과 집단이 5년 초과 10년 이하 집단보다 개인적 성장이 높게 나타났으며, 자기수용은 교직 유지 예상기간이 길수록 높게 나타났다. 실제 현장에서는 1년 이하의 경력을 가진 유아교사가 직무만족이 높게 나타나며(이연승, 박향원, 2003), 유아교사의 연령이 적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문채련, 2005). 이는 예비유아교사가 유아교사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바로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교사가 되어 직무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유아교사가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적응 기간이 지나 교사 갱신기, 성숙기로 들어가면서 정체감이 확립되어 보다 현실적인 보수 및 인간관계 수립에 대한 욕구가 높아져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종합해보면,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심리적 안녕감은 예비유아교사의 변인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인 중에서 교육정도, 교직 유지 예상

기간에서 약간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리적 안녕감 하위요인 중에서 자기수용이 다른 하위요인들에 비해 예비유아교사의 변인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2. 예비유아교사의 자아탄력성

예비유아교사의 자아탄력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유아교사의 자아탄력성 하위요인 중 낙관적 태도가 높은 것은 경북 지역의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김혜순(2011)의 연구 중 자아탄력성 연구결과와 유사하며, 서울·경기 지역의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김윤경(2011)의 연구 중 자아탄력성 연구결과와 유사하고, 경기 지역의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심순애(2007)의 연구 중 자아탄력성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경북 지역의 대학생 대상으로 한 연구(정재은 외, 2011)에서도 낙관적 태도가 가장 높은 하위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예비유아교사의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 중 특히 낙관적 태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대부분의 유아교육기관의 조직특성상 조직의 규모가 작고 거의 대부분이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계를 중시하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조혜선, 2008), 여성의 자아탄력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하위요인은 대인관계로 나타났다(김경순 외, 2006). 이는 긍정적 대인관계의 중요성은 한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김명소 외, 2001),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혜원, 김명소, 2000b)에서도 나타난 바 있는 결과이다. 유아교사는 성공적인 사회적 관계를 통해 안녕감을 증진시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과 동시에 필수적인 측면인 것으로 여겨진다.

변인에 따른 예비유아교사의 자아탄력성과 하위요인에 대해 정리 및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유아교사의 교육정도에 따른 자아탄력성은 하위요인 중 대인관계 효율성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4년제 대학교 학생이 3년제 대학교 학생보다 대인관계 효율성에서 높은 자아탄력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추측해 볼 수도 있다. 박현진(1996)은 문제중심적 전략과 사회적 지지추구를 강하게 사용하는 경향을 보이는 이들이 자아탄력성이 높으며, 주변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로 강화받아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한다고 하였다.

둘째, 예비유아교사의 교직 유지 예상기간에 따른 자아탄력성은 하위요인 중 낙관적 태도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교직 유지 예상기간이 10년 초과인 집단이 10년 이하인 집단보다 낙관적 태도에서 높은 자아탄력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회복탄력성을 연구한 권수현(2011)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자신에 대한 통찰력과 따뜻함을 갖춘 유아교사가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여 부정적 태도를 덜 나타낸다고 하였다(심순애, 2007). 이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목표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억압이나 스트레스 상황을 잘 극복하고 적응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3.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안녕감과 자아탄력성의 관계

첫째,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안녕감과 자아탄력성은 전반적으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예비유아교사가 탄력적인 자아를 지닐수록 안녕감이 높고, 예비유아교사의 안녕감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유아교사의 행복, 자기효능감, 직무만족도 간에 대부분 정적 상관이 있다는 배성희(2009)의 결과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유아교사의 안녕감과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을수록 교사효능감이 높게 나타나 이는 교사-유아 상호작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유사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곽희경, 2011). 앞서 살펴보았듯이 예비유아교사의 안녕감과 자아탄력성은 예비유아교사의 개인 변인에 모두 영향을 받고, 특히 심리적 안녕감은 교직 유지 예상기간에 더욱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능동적인 동기로 유아교사를 선택한 예비유아교사를 위해 안녕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과 탄력적인 자아상을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실시한다면, 둘 간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유아교사의 질의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유아교육의 질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둘째,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한 안녕감과 자아탄력성 하위요인 간의 관계를 분석해 보면, 안녕감은 자아탄력성의 자신감, 대인관계 효율성, 낙관적 태도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예비유아교사의 자신감, 대인관계 효율성, 낙관적 태도, 숙련된 표현력이 탄력적일수록 예비유아교사의 안녕감도 높고, 예비유아교사의 안녕감이 높을수록 자신감, 대인관계 효율성, 낙관적 태도, 숙련

된 표현력에서 탄력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안녕감을 느끼는 유아교사일수록 자신의 직업에 대한 만족감과 성취도에서 높은 성과를 나타낸다는 연구결과(이경애, 이경민, 2010)와 행복한 유아교사일수록 자신의 강점을 활용하고 자신의 직무에도 만족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결과(이경민, 최윤정, 이경애, 2009)와 유사한 맥락이다.

한편, 예비유아교사의 자아탄력성 중 숙련된 표현력은 안녕감과 약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예비유아교사의 숙련된 표현력 능력과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안녕감이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교사가 정서조절을 효과적으로 할수록 직무스트레스가 감소한다는 연구결과(임지윤, 2011)와 상관의 정도에 차이를 보인다. 또한 서울·경기 지역 유아교사의 숙련된 표현력과 정서노동이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결과(김윤경, 2011)와도 상이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예비유아교사의 자아탄력성과 안녕감의 하위요인 간 관계를 분석해 보면, 자아탄력성은 주관적 안녕감 하위요인 중 삶의 만족, 긍정 정서와 정적 상관이 있고, 부정 정서와는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탄력성은 심리적 안녕감 하위요인 중 자기수용, 환경통제력,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개인적 성장, 삶의 목적 순으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예비유아교사의 주관적·안녕감 중 삶의 만족, 긍정 정서, 자기수용, 환경통제력,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삶의 목적에 긍정적 태도를 지닐수록 탄력적인 자아상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예비유아교사의 자아가 탄력성을 지닐수록 삶의 만족, 긍정 정서, 자기수용, 환경통제력,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개인적 성장, 삶의 목적에 긍정적 태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 중 낙관적 태도가 주관적·심리적 안녕감 전체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낙관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직업적 회의를 겪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일반화된 기대는 주관적·심리적 안녕감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을 예측 할 수 있다. 즉, 교사의 낙관성은 유아교사 자신 뿐 아니라 유아의 건강한 전인적 발달을 위한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으며, 비관적 사고를 낙관적 사고로 전환하는 예비유아교사의 노력이 중요함을 예측 할 수 있다.

그리고 예비유아교사의 주관적 안녕감 중에서 부정 정서는 자아탄력성과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예비유아교사의 부정 정서가 높을수록 자아탄력

성에 강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부정 정서와 성격이 유사한 직무스트레스가 자아탄력성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연구결과(한인자, 2005)와 상관의 정도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는 한인자의 연구대상은 취업 상태이므로 안정적이며, 연령이 높은 유아교사인 반면, 본 연구에 참여한 예비유아교사는 모두 미취업 상태이며,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학생 인데서 오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현직유아교사가 예비유아교사보다 교사효능감에서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발달에 적합한 실제에 대한 교사신념은 예비유아교사가 현직유아교사보다 발달에 적합한 실제에 대한 신념이 높은 경향이 보였으며 발달에 부적합한 실제에 대한 신념은 낮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즉 현직교사들은 교육 경험이나 경력이 예비유아교사보다 더 많으므로, 교사효능감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이경옥, 2002), 예비유아교사 집단 내에서도 학년에 따라 유아교사에 대한 전문역량 인식이 긍정적 방향으로 높아지고 있다(박미자, 2010). 따라서 예비유아교사의 부정 정서를 감소시키고, 탄력적인 자아상 형성을 위해서는 예비유아교사를 위한 교육과정이 학년에 따라 심도있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유아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적인 지식, 기술, 태도를 포함하는 교사교육이 필요하다.

예비유아교사의 주관적·심리적 안녕감 중에서 자아탄력성 전체와 모든 하위요인과에서 높은 상관을 나타낸 것은 자기수용이었다. 이는 자기수용이 높을수록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 행동을 많이 하고(박수길, 1994), 지속적인 생활스트레스는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이옥형, 2012). 이러한 결과는 교사의 인격과 자아개념이 교사의 교수 행동 뿐 아니라 언어, 행동, 태도 등과 관계를 나타내며, 학생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특성(박성호, 2009)을 통해 이해 할 수 있다.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안녕감과 자아탄력성 간의 관계에 대해 정리해 보면, 안녕감과 자아탄력성은 전반적으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은 주관적 안녕감의 하위요인 중 삶의 만족과 긍정 정서와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부정 정서와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그리고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들과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은 모두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자아탄력성의 숙련된 표현력과 주관적·심리적 안녕감과 모두 약한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 중 자기수용은 자아탄력성의 낙관적 태도와 상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안녕감과 자아탄력성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고, 예비유아교사의 개인 변인에 따라 안녕감과 자아탄력성에 차이가 있는지, 그 관계는 어떠한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주관적 안녕감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주관적 안녕감의 모든 하위요인에 대한 인식이 평균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예비유아교사의 변인 중 교육정도, 교직 유지 예상기간이 주관적 안녕감과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4년제 대학교의 예비유아교사가 3년제 대학교의 예비유아교사보다 주관적 안녕감 전체와 삶의 만족, 긍정 정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직 유지 예상기간이 10년 초과인 예비유아교사가 10년 이하인 예비유아교사보다 삶의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비유아교사의 심리적 안녕감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심리적 안녕감 전체와 모든 하위요인에 대한 인식이 평균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예비유아교사의 변인 중 연령, 교직 유지 예상기간이 심리적 안녕감과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예비유아교사의 연령이 22세 미만일수록 심리적 안녕감 전체와 긍정적 대인관계, 자기수용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예비유아교사의 교직 유지 예상기간이 길수록 심리적 안녕감 전체와 자율성, 환경 통제력, 개인적 성장, 자기수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예비유아교사의 자아탄력성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낙관적 태도가 높고, 숙련된 표현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유아교사의 변인 중 교육정도, 교직 유지 예상기간이 자아탄력성과 하위요인에 대한 예비유아교사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4년제 대학교의 예비유아교사가 3년제 대학교의 예비유아교사보다 대인관계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직 유지 예상기간이 길수록 낙관적 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안녕감과 자아탄력성은 정적상관이 있으며, 하위요인 간에도 전반적으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주관적 안녕감의 하위요인 중 삶의 만족과 자아탄력성의 낙관적 태도 사이에서 가장 높은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 중 자기수용과 자아탄력성의 낙관적 태도에서 가장 높은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예비유아교사의 자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안녕감이 높고, 예비유아교사의 높은 안녕감은 개인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예비유아교사의 삶의 만족과 자기수용이 높을수록 개인의 자아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론을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안녕감의 전반적인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예비유아교사의 안녕감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예비유아교사의 주관적 안녕감의 부정 정서와 심리적 안녕감의 자율성이 각각 가장 낮았다. 한편, 주관적 안녕감의 긍정 정서와 심리적 안녕감의 삶의 목적이 다른 하위요인에 비해 자아탄력성과의 관계에서 다소 낮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예비유아교사가 직면할 수 있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인지적·정서적 조절 전략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정적 정서를 높이고 부정 정서를 줄여 안녕감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예비유아교사의 자아탄력성의 전반적인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예비유아교사의 자아탄력성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 중 예비유아교사의 탄력적인 자아상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숙련된 표현력이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은 타고나는 개념이 아니며 도전적인 환경에서 긍정적으로 적응하는 경험을 통해 발달하는 역동적 개념이다(이하나 외, 2006). 따라서 유아교사 양성과정에서 예비유아교사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지원체계를 고안하여, 예비유아교사의 자아탄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안녕감과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예비유아교사의 변인을 살펴보면, 예비유아교사의 교직 유지 예상기간은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교사 양성과정에서 예비유아교사에게 교직 유지에 대한 비전 제시와 동료와 선배, 교수와의 사회적 관계를 지원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리고 예비유아교사의 연령은 심리적 안녕감과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연령에 따라 예비유아교사가 참여할 수 있는 사회경험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정도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사양성 교육과정에서 안녕감과 자아탄력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적용하고, 이들이 다양한 사례를 경험하며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하는 과정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론과 시사점을 토대로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의 전반적인 안녕감과 자아탄력성의 양상을 알아보았으나, 편의표집으로 이루어져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또한 연구대상인 예비유아교사들은 서울지역 3·4년제 유아교육과 2학년 학생부터 연구대상에 포함되었으므로, 이들의 안녕감과 자아탄력성 특성이 충분히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전공특성이 확실히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 실습 직후의 예비유아교사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고, 표집에서도 보다 대표성을 갖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안녕감과 자아탄력성에 대한 선행연구는 각각 유아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낙관성, 사회적지지, 스트레스, 직무만족도 등과의 관계를 밝히는 것에 그치고 있다. 예비유아교사의 안녕감과 자아탄력성이 유아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개인적 만족을 알아보는 차원이 아닌 실제로 교육에 미치는 효과와 관련지어 규명 할 필요가 있다. 즉, 예비유아교사의 안녕감과 자아탄력성, 그리고 교육의 질, 유아와 상호작용의 질 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예비유아교사들이 현직에 입문하여 실제로 교직을 유지하는 기간을 조사하고, 교직생활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 인터뷰를 통해 안녕감 및 자아탄력성과 교직 유지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종단 연구가 필요하다. 예비유아교사 시기에 가졌던 안녕감과 자아탄력성이 현직 교사로서의 생활을 통해 변화되었는지, 변화가 있었다면 그 계기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연구도 유아교사의 안녕감과 자아탄력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영욱(2011). 예비 영유아 교사의 자아개념, 자아 효능감, 보육교사 전문성, 교직원에 대한 인식. *한영논총*, 15, 257-278.
- 강정갑(2001). 경남지역 초등학교사의 심리적 안녕감과 교사 위상변화에 대한 지각.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은정(1997). 애착유형에 따른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희경(2011). 유아교사의 행복감 및 자아정체감과 교사효능감,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관계.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구본용(1991). 고독한 사람들의 대인관계 특성.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구재선, 김의철(2006). 심리적 특성, 생활 경험, 행복의 통합적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0(4), 1-18.
- 구희정, 강정원(2009). 유아교사의 교수 스트레스와 유아와의 관계가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13(1), 281-297.
- 국립국어원(2012). 표준국어대사전. <http://korean.go.kr/main.jsp>에서 2012년 5월 10일 검색.
- 권두승(2007). 성인교육자의 교수동기, 몰입 및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 *평생교육학연구*, 13(1), 161-185.
- 권수현(2011). 예비유아교사의 회복탄력성 분석. *육아지원연구*, 6(1), 47-66.
- 권연희(2010). 초등학교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혁규(2003). 중등교원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인식수준 분석.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순(2006). 대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의 구조분석 및 주관적 안녕감과 관계 분석. *학생생활연구*, 27, 145-176.
- 김경순, 김정남, 박원모, 천성문(2006). 대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 구성개념 분석. *인문학논총*, 11(1), 1-23.

- 김남희(2005). 희망과 사회적 지지, 대처방식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2001).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개념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2), 19-39.
- 김명소, 성은현, 김혜원(1999). 한국 기혼여성(아줌마) 들의 성격 특성과 주관적 삶의 질.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4(1), 41-55.
- 김민정, 이희경(2006). 상담심리학회 : 포스터발표 ; 낙관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사회적 지지를 매개 변인으로.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6.
- 김원아(2012). 행복 증진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윤경(2011). 유아교사의 정서노동과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희, 박희서(2010). 조직 내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7(1), 1-28.
- 김의철, 박영신(2004). 청소년과 성인의 삶의 질 인식에 대한 토착심리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4), 973-1002.
- 김인숙(2010). 보육교사가 지각한 영아의 애착안정성과 사회·정서적 행동과의 관계.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은(2010). 예비유아교사의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행복감 및 교육신념의 관계.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영(2008). 초등학생이 지각한 자아탄력성, 주관적 안녕감과 스트레스 지각 수준 및 대처양식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택호, 김재환(2004). 청소년의 탄력성 발달 과정에서 희망과 삶의 의미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3), 465-490.
- 김현주(2005). 놀이치료자의 자아탄력성 및 스트레스 대처 방식과 역전이 관리 능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순(2011). 일반논문 : 예비유아교사의 자아탄력성과 개인적 교수효능감의 관계에서 종교성의 매개효과. 종교교육학연구, 35, 139-158.
- 김혜원, 김명소(2000a). 여성 :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개념 타당도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기혼여성들을 중심으로.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0.

- 김혜원, 김명소(2000b). 우리나라 기혼여성들의 심리적 안녕감의 구조분석 및 주관적 안녕감과 관계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5(1), 27-41.
- 나석희, 이현진(2012). 어린이집 교사들이 보육경험과정에서 겪는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해결방안. 유아교육학논집, 16(1), 69-94.
- 노길영(1999). 경력 유치원 교사를 통해 본 교사 발달의 제요인 및 유형.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채련(2005). 유아교사의 직무만족도와 소진. 한국생활과학회지, 14(3), 387-339.
- 박미자(2010). 예비유아교사와 현직교사의 교사 전문 역량에 관한 인식 연구. 한국유아교육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2010, 407-407.
- 박병기, 이선영, 송정화(2010). 자아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검증. 교육심리연구, 24(1), 61-82.
- 박서연, 정영숙(2010).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과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및 내재화 문제와의 관계에서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 한국심리학회지:발달, 23(1), 167-167.
- 박성호(2009). 자아개념과 자기효능감을 통한 사회과 교사의 태도 분석.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수길(1994). 자아정체성에 따른 진로의사결정 유형과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수진(2011). 초등학교 여교사의 심리적 안녕감과 교사효능감, 직무만족도의 관계.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신영(2010). 유치원 교사가 인식하는 심리적 안녕감과 협동적 조직문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신(2012a). 예비 유아교사의 낙관성에 따른 스트레스 지각과 사회적 지지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3(1), 36-80.
- 박영신(2012b).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예비 유아교사의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기질적 낙관성, 사회적 지지 및 스트레스 대처 전략 영향 분석. 유아교육학논집, 16(2), 113-137.
- 박유연(2012.2.27.). 한국인 삶의 질, OECD 꼴찌(32개국 중 31위): 신뢰 부족한 나라.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2/27/2012022700133.

- html에서 2012년 5월 10일 검색.
- 박은혜, 조운주(2007).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한 유아교사 이미지의 변화 탐색.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11(4), 225-246.
- 박은희(1996). 자아탄력성, 지능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종흡, 신남철(2002). 교사들의 심리적 안녕감과 직무만족간의 관계 연구. 인문논총, 9, 91-111.
- 박지선, 이대균(2011). 취업을 준비하는 예비유아교사의 어려움. 어린이미디어연구, 10(2), 67-89.
- 박지혜, 이하나, 정현주, 이기학(2005). 대학생의 자아탄력성과 행복감이 스트레스 지각에 미치는 영향.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5, 474-475.
- 박현진(1996). 자아탄력성에 따른 지각된 스트레스, 대처 및 우울.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성희(2009). 보육교사의 행복이 교사의 효능감과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산교육학연구, 22, 25-44.
- 서연주(2007). 초등교사의 발달단계에 따른 직무만족도 연구.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현주(2006). 어린이집 교사의 심리적 안녕감과 교사효능감의 관련성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은국, 구재선(2011). 단축형 행복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사회 및 성격, 25(1), 96-114.
- 서은국, 구재선, 이동귀, 정태연, 최인철(2010). 특별 심포지엄: 한국인의 행복 및 정신건강 지수: 한국인의 행복 지수와 그 의미.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0, 213-232.
- 서지영(2002). 유치원 교사의 이직의도에 관한 이론적 모형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하진(2009).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건강성이 자아존중감과 행복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설기문(2001). NIP와 마음다스리기. 한국정신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5, 122-134.
- 설진미(2006). 대학생의 지속적인 행복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 아

- 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성주희, 홍혜영(2012). 대학생의 완벽주의 성향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성취동기의 매개효과 검증. *상담학연구*, 13(1), 325-340.
- 신경숙(2009). 예비유아교사의 학과적응, 진로결정도 및 종교활동과 심리적 안녕감과 관계. *교사교육연구*, 48(2), 1-20.
- 신은수(1996). 4년제 유아교사양성 대학의 정규 교육실습이 예비교사의 현장 지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덕성여대논문집*, 25, 315-328.
- 심순애(2007). 보육교사의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소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진희(2010). 유치원 교사의 전문성 발달에 따른 소진과 자아탄력성과의 차이.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소오(2010). Likert형 척도의 반응 형식에 따른 양호도 비교 : 범주의 수와 중립반응범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은정(2002). 고등학생의 진로 미결정과 자아 정체감 및 인생목적과의 관계.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미숙, 신미, 전성희(2010). 연구논문 : 청소년의 삶의 만족과 안녕에 관한 요인 연구. *청소년학연구*, 17(9), 131-150.
- 유순이(2003). 유아교사의 발달단계에 따른 직능특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지연(2011). 유아교사의 자아탄력성과 직무스트레스가 전문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현정(2011).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 심리적 안녕감, 그리고 이직의도 간의 관계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현희, 홍창혁, 이진환(2001). 부모보고형 자아탄력성 척도의 개발. *심리과학*, 10(1), 33-53.
- 이경민, 최윤정(2009). 유아교사의 행복, 강점, 직무만족의 관련성 탐색 연구. *유아교육연구*, 29(3), 215-235.
- 이경민, 최윤정, 이경애(2009). 유아교사의 행복증진 프로그램 개발연구. *한국유아교육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2009(1), 299-300.
- 이경애, 이경민(2010). 유아교사와 행복지수와 직무능력 간의 관계연구. *한국유아교육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2010, 409-409.

- 이경옥(2002). 현직유아교사와 예비유아교사의 교사신념에 관한 연구: 목표지향성, 교사효능감 및 발달에 적합한 실재에 대한 교사신념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8, 195-212.
- 이미란, 김정원(2011). 영유아교사의 심리적 안녕감과 교사현신.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2(2), 243-260.
- 이상숙(2009). 아동의 내·외향적 성격 특성, 부모-자녀 의사소통 수준과 심리적·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련, 이정화(2010). 유치원 교사의 경력에 따른 소진과 자아탄력성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30(6), 51-65.
- 이수진(2009). 대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유대감과 자율성이 학교생활적응과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대인관계문제를 매개로.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6(2), 229-248.
- 이연승, 박향원(2003). 유아교사의 직무만족도 연구: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유아교육학술집, 7(2), 235-260.
- 이영이, 노진숙, 윤영숙, 전은희(2011). 초등교사의 낙관성과 정서조절양식 및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한국동서정신과학회지, 14(1), 51-63.
- 이옥형(2012).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9(1), 29-57.
- 이재신, 이지혜(2011). 교사의 자율성, 낙관성, 교수몰입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 한국교원교육연구, 28(1), 66-90.
- 이정희, 조성연(2011). 보육교사의 소진에 대한 자아탄력성과 시설장, 동료교사와 가족의 사회적 지지. 아동학회지, 32(1), 157-172.
- 이지연(2000). 한국아동인성검사의 자아탄력성척도 타당도 연구.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혜(2010). 교사의 심리적 소진과 주관적 안녕감과 관계. 한국교원연구, 27(3), 143-164.
- 이하나, 정현주, 이기학, 이학주(2006). 대학생의 자아탄력성, 행복감과 스트레스 지각 및 대처와의 관계. 상담학연구, 7(3), 701-713.
- 이희경, 김성수(2007). 유아교사 역할에 대한 예비유아교사의 신념 분석: Q-방법론적 접근. 영유아교육연구, 10, 169-186.
- 임승렬(2003). 유치원교사의 자아상(self-image) 검사도구 개발과 자아상분석.

- 열린유아교육연구. 8(2), 315-332.
- 임지윤(2011). 교사의 정서노동과 정서조절이 직무스트레스, 소진 및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상원, 심홍섭(2008). 내외통제성, 인지정서조절 전략과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연구. 인간이해, 29, 61-81.
- 정유숙, 김승태, 김지혜, 홍성도(1996). 한국에서의 학습장애 아동에 대한 예비적 연구. 소아청소년정신의학. 7(2). 247-257
- 정은선(1997). 성격 및 생애사건과 주관적 안녕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재은, 정슬기, 권송이, 최혜린, 배운진(2011). 대학생의 사회경험과 자아탄력성 간의 관계. 부모교육연구, 8(2), 101-124.
- 정혜옥, 이옥형(2011). 초임 유아교사와 경력 유아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31(3), 31-53.
- 조경서, 남기원(2011). 유아의 행복감과 자아탄력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 유아교육학회집, 15(4), 161-178.
- 조은향(2009). 삶의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의 관계에서 긍정 및 부정정서와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검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혜선(2008). 유치원 교직문화 분석 : 경력교사 10인의 인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차경호(1999). 대학생들의 주관적 안녕감과 개인중심주의-집단중심주의 성향과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10(2), 193-216.
- 차경호(2004). 한국과 미국대학생의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1(3), 321-337.
- 차영숙, 강민정, 유희정(2011). 예비유아교사들이 교육실습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긍정적 경험. 유아교육학논집, 15(3), 369-394.
- 최진숙, 윤경선(2009). 예비유아교사의 사고양식과 자아정체감이 양육신념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회집, 13(4), 233-248.
- 한규석(2002). 한국적 심리학적 전개 현황과 과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1(2), 67-95.
- 한인자(2005). 유아교사의 자아존중감과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

- 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중혜(1996). 아동의 사회적 관계망에 따른 역량지각 및 자아존중감.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은숙(2006). 탄력성(resilience)의 개념적 이해와 교육적 방안. 특수교육학연구, 41(2), 45-67.
- 황신덕(2004). 상사의 리더십 및 상사에 대한 신뢰와 구성원태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자아탄력성.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lock, J. H., & Kre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 and sepa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361.
- Day, C. (2007). 열정으로 가르치기 [A passion for teaching] (박은혜, 이진화, 위수경, 조혜선 공역). 서울: 파란마음. (원서 2004년 출판).
- Diener, E. (1994). Assessing subjective well-being: Progress and opportuniti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31(2), 103-157.
- Diener, E. (2000). Subjective Well-being, the science of happiness and a proposal for a national index. *American Psychologist*, 55, 34-43.
- Diener, E., Oishi, S., & Lucas, R. E. (2003). Personality,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Emotional and Cognitive Evaluations of Lif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4, 403-426.
- Diener, E., & Seligman, M. E. P. (2002). Very happy people. *Psychological science*, 13(1).
- Fraser, M. W., Richman, J. M., & Galinsky, M. J. (1999). Risk, protection, and resilience: Toward a conceptual framework for social work practice. *Social Work Research*, 23, 129-208.
- Garmezy, N. (1993). Vulnerability and resilience. In C. C. Funder, R. D. Parke, C. Tomlinson-Keesey, & K. Widaman (Eds.), *Studying lives through time: Approaches to personality and development* (pp. 377-398).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Klohn, E. C. (1996).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resili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361.

- Psychology*, 70, 1067-1079.
- Masten, A. S. (2001). Ordinary Magic-resilience processes i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6(3), 227-238.
- Seligman, M. E. P. (2009). 마틴셀리그만의 긍정심리학(김인자역). 서울: 물푸레(원서 1994 출판).
- Seligman, M. E. P., Park, E., & Peterson, C. (2005). Positive Psychology Progress. Empirical Validation of Interventions. *Tidsskrift - Norsk Psykologforening*, 42(10), 874-884.
- Scheier, M. F., Carver, C. S., & Bridges, M. W. (1994). Distinguishing Optimism From Neuroticism (and Trait Anxiety, Self-Mastery, and Self-Esteem): A Reevaluation of the Life Orientation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6), 1063.
- Rolfe, S. A. (2004). *Rethinking attachment for early childhood practice : promoting security, autonomy and resilience in young children*. Crows Nest, IN: Allen & Unwin.
- Ryan, R. M., & Deci, E. L. (2001). On happiness and human potentials : a review of research on hedonic and eudaimonic well-being.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 141-166.
- Ryff, C. D.(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69-1081.
- Veenhoven, R. (1991). Is happiness relative? *Social Indicators Research*, 24, 1-34.
- Winfield, L. (1991). Resilience, schooling, and development in African-American youth. *Education and Urban Society*, 24, 5-14.

부 록

예비유아교사의
행복감과 자아탄력성에
관한 설문지

<예비유아교사의 행복감과 자아탄력성에 관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있으며 예비유아교사의 행복감과 자아탄력성에 대한 석사학위 논문을 준비 중인 학생입니다. 이 연구에 귀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여 설문지를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예비유아교사의 행복감과 자아탄력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설문지의 응답은 무기명으로 통계 처리되며, 연구 자료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각 문항에는 옳고 그름이 없으므로 질문 내용을 잘 읽으신 후, 귀하께서 평소에 느끼신 대로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5분 정도입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저의 연구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예비유아교사의 행복감과 자아탄력성 증진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하의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년 5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과
지도교수: 박 은 혜
연구자: 박 유 진

※ 본인의 행복감과 자아탄력성 지수 측정 결과를 알기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세요. _____

※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배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칸에 표시(√) 하거나 내용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연령**은? 만 _____ 세

2. 귀하의 재학 중인 **학교의 유형**은?

_____ 2년제 대학교

_____ 3년제 대학교

_____ 4년제 대학교

3. 귀하의 **교직 유지 예상기간**은?

_____ 5년 이하

_____ 5년 초과 10년 이하

_____ 10년 초과

※ 다음의 문항들은 귀하의 **주관적 행복감**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1.개인적 측면** (개인적 성취, 성격, 건강 등),
2.관계적 측면 (주위사람들과의 관계 등),
3.집단적 측면 (내가 속한 집단-직장, 지역사회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삶의 각 측면에서 귀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귀하는 그러한 삶의 각 측면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각 문항을 잘 읽으시고, 귀하의 현재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준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보기>와 같이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기>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나는 커피를 좋아한다.			

<문항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 삶의 개인적 측면 에 대해서 만족한다. <small>(개인적 측면 : 개인적 성취, 성격, 건강 등)</small>			
2 나는 내 삶의 관계적 측면 에 대해서 만족한다. <small>(관계적 측면 : 주위사람들과의 관계 등)</small>			
3 나는 내가 속한 집단에 대해서 만족한다. <small>(내가 속한 집단 : 직장, 지역사회 등)</small>			

※ 다음의 문항들은 귀하의 **경험한 감정**을 묻는 질문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무엇을 하며 지냈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다음에 제시되는 감정들을 얼마나 자주 느꼈는지** 귀하의 현재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준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보기>와 같이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기>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나는 커피를 좋아한다.	√		

	<문항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4	즐거운			
		1	2	3
		4	5	6
		7		
5	편안한			
		1	2	3
		4	5	6
		7		
6	부정적인			
		1	2	3
		4	5	6
		7		
7	행복한			
		1	2	3
		4	5	6
		7		
8	짜증나는			
		1	2	3
		4	5	6
		7		
9	무기력한			
		1	2	3
		4	5	6
		7		

※ 다음은 귀하의 **심리적 안녕감**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의 현재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준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보기>와 같이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기>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커피를 좋아한다.	1	2	3	4	5	6

<문항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대다수의 사람들과 의견이 반대될 때에도 나는 내 의견을 분명히 말하는 편이다.	1	2	3	4	5	6
2 전반적으로 나는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 나간다고 느낀다.	1	2	3	4	5	6
3 현재의 내 활동 반경(생활 영역)을 벗어나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	1	2	3	4	5	6
4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다정하고 상냥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6
5 나는 미래에 대한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	1	2	3	4	5	6
6 나의 삶을 되돌아볼 때, 지금까지의 결과에 만족한다.	1	2	3	4	5	6
7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 편이다.	1	2	3	4	5	6
8 일상생활에서 나에게 요구되는 일들이 종종 힘들게 느껴진다.	1	2	3	4	5	6
9 나는 새로운 방법들을 시도하는 것 보다는 지금 삶의 방식 그대로 사는 것이 좋다.	1	2	3	4	5	6
10 나는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감당하기 어렵고 힘들다.	1	2	3	4	5	6
11 시간이 지나 '미래'가 되어도 힘든 일은 항상 있기 때문에 미래보다 현재에 집중한다.	1	2	3	4	5	6
12 나는 자부심이 강하며 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편이다.	1	2	3	4	5	6

	<문항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3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걱정하는 편이다.	1	2	3	4	5	6
14	나는 주변 사람들이나 집단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	1	2	3	4	5	6
15	나는 내 자신과 세상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6
16	나는 고민을 털어놓을 만큼 가까운 친구가 없어서 자주 외로움을 느낀다.	1	2	3	4	5	6
17	나는 종종 일상적인 일들이 중요하지 않고 사소하다고 느낀다.	1	2	3	4	5	6
18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하는 것 같다.	1	2	3	4	5	6
19	나는 남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내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6
20	나는 일상생활에서 내가 책임지고 해야 할 일들을 잘 해내고 있다.	1	2	3	4	5	6
21	나는 지난 몇 해 동안 내 자신이 크게 발전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6
22	나는 가족이나 친구와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한다.	1	2	3	4	5	6
23	나는 인생에서 무엇을 성취하고자 하는지 잘 모르겠다.	1	2	3	4	5	6
24	나는 내 성격의 거의 모든 면을 좋아한다.	1	2	3	4	5	6
25	나는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표현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6
26	나는 책임감으로 인하여 자주 스트레스를 받는다.	1	2	3	4	5	6

	<문항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27	지금까지 나는 한 사람으로서 많은 발전을 해왔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6
28	내가 필요할 때 나의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많지 않다.	1	2	3	4	5	6
29	나는 미래의 목표를 미리 정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6
30	나는 과거에 약간의 실수를 하기도 했지만, 대체로 모든 일을 잘 해 왔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6
31	일반적인 여론과 의견이 반대될 때에도 나는 내 의견이 옳다는 확신이 있다.	1	2	3	4	5	6
32	나는 나의 개인적인 문제나 돈 문제를 잘 관리하고 있다.	1	2	3	4	5	6
33	나는 익숙한 생활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것을 싫어한다.	1	2	3	4	5	6
34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보다 친구가 더 많은 것 같다.	1	2	3	4	5	6
35	나는 미래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다.	1	2	3	4	5	6
36	그동안 성취한 것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실망스럽게 느껴진다.	1	2	3	4	5	6
37	나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 내 의견을 나타내는 것이 어렵다.	1	2	3	4	5	6
38	나는 시간 활용을 잘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제 때에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다.	1	2	3	4	5	6
39	지금까지 나의 인생은 배우고, 변화하고, 성장하는 과정의 연속이었다.	1	2	3	4	5	6
40	사람들은 나를 '자신의 시간을 할애하여 기꺼이 남을 돕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6

	<문항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41	나는 내가 세운 계획을 적극적으로 실천한다.	1	2	3	4	5	6
42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다.	1	2	3	4	5	6
43	내가 내린 결정에 대해 친구나 가족이 반대하면 나는 내 결정을 종종 바꾼다.	1	2	3	4	5	6
44	나는 내 삶을 만족스럽게 꾸려나가는 것이 어렵다.	1	2	3	4	5	6
45	나는 내 인생을 크게 발전시키거나 변화 시키겠다는 생각을 오래전에 버렸다.	1	2	3	4	5	6
46	나는 다른 사람과 따뜻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많이 경험하지 못했다.	1	2	3	4	5	6
47	어떤 사람은 일생을 목표 없이 방황하지만 나는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	1	2	3	4	5	6
48	과거에 늘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나는 나의 과거에 만족한다.	1	2	3	4	5	6
49	나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내 자신을 판단한다.	1	2	3	4	5	6
50	나는 나의 가정과 생활 방식을 내 마음에 들도록 이끌어 왔다.	1	2	3	4	5	6
51	나는 지금까지 살아 온 생활 방식을 뒤늦게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6
52	나와 내 친구는 서로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	1	2	3	4	5	6
53	나는 내 인생에서 더 이상 해야 할 일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1	2	3	4	5	6
54	나를 내 친구나 지인과 비교해봤을 때, 지금 내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1	2	3	4	5	6

※ 다음은 귀하의 **자아탄력성**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의 현재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준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보기>와 같이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기>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커피를 좋아한다.	√				

<문항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종종 전공 선택을 잘못했다고 느낀다.					
2 일주일에도 몇 번씩이나 나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3 강한 사람에게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4 내가 다른 사람들을 잘 이끌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5 낯선 사람에게 말을 붙이는 것이 어렵다.					
6 종종 내 삶은 무의미한 것 같다.					
7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집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8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대해 말하는 것이 몹시 힘들다.					
9 많은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나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생각이 잘 나지 않는다.					
10 나는 확실히 자신감이 부족하다.					
11 나는 일이 잘 안될 것 같으면 빨리 포기하고 싶은 느낌이 든다.					
12 나는 올바르게 살아오지 못했다.					
13 나는 종종 쓸데없는 생각들에 사로잡혀 짜증이 난다.					

<문항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 14 나는 수업 중에 앞에 나가서 얘기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 15 나는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 아니면 말을 많이 하는 것을 꺼려한다.
- 16 내 일상은 흥미진진한 것들로 꽉 차있다.
- 17 내 생각에는 미래가 희망이 없는 것 같다.
- 18 대체로 나는 행복하다고 느낀다.
- 19 나는 종종 벌컥 화를 낸다.
- 20 나는 세상이 그저 스쳐지나가는 것이라는 느낌이 자주 든다.
- 21 나는 잘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당혹스럽다.
- 22 나는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
- 23 뭔가 결정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은 대체로 나에게 조언을 구한다.
- 24 일이 진행되고 있을 때에도 그 일이 잘 이루어지리라는 희망이 없다.
- 25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는 느낌이 가끔 든다.
- 26 때때로 나는 일을 해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 27 나는 일단 화가 나면 성질이 고약해진다.
- 28 나는 학교 다니는 것을 좋아한다.
- 29 나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

ABSTRACT

Pre-service Kindergarten Teachers' Perceived Well-being and Ego-resilience

Park, Eugene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overall aspects of pre-service kindergarten teachers' perceived well-being,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of pre-service kindergarten teachers' perceived well-being and ego-resilience according to pre-service kindergarten teachers' personal variables, and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well-being and ego-resilience. The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1. How is the perceived well-being of pre-service kindergarten teachers?
 - 1-1. Is there any difference in pre-service kindergarten teachers' perceived subjective well-being according to personal variables (age, education level, estimated teaching career)?
 - 1-2. Is there any difference in pre-service kindergarten teachers' perceived psychological well-being according to personal variables (age, education level, estimated teaching career)?
2. How is the perceived ego-resilience of pre-service kindergarten teachers?
 - 2-1. Is there any difference in pre-service kindergarten teachers' perceived ego-resilience according to personal variables (age, education level, estimated teaching career)?

3.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well-being of pre-service kindergarten teachers and ego-resilience of pre-service kindergarten teachers?

Subjects for this study are 213 pre-service kindergarten teachers being educated in universities located in Seoul. For analyzing subjective well-being, SWB(Subjective Well-Being), developed by Diener(1984), was adapted by Seo-eun-guk and Gu-jae-seon (2011). They used COMOSWB(Concise Measure of Subjective Well-Being) that reflect and develop for Korean emotion. For analyzing psychological well-being, PWB(Psychological Well-Being), developed by Ryff(1989), was adapted by Park-sin-yung(2010). Park used the tools that she adapted and corrected. For analyzing ego-resilience of pre-service kindergarten teachers, ERS(Ego-Resilience Scale), adapted by Park-hyun-jin, is used. ERS that is developed by Block(1978) is finally developed by Klohenn(1996) to 29 questions. For data analysis, frequency, percentage and average are yielded, and t-test and ANOVA are utilized. In case of significant difference, Duncan posterior test was used to find out differences between groups. To find the relationship between well-being and ego-resilience, correlation analysis was u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pre-service kindergarten teachers' perceived subjective well-being is higher than average. The most highly perceived subordinate factors of subjective well-being is life satisfaction, whereas negative effect is most lowly perceived.

Among the pre-service kindergarten teachers' variables, education level, estimated teaching career appeal to have significant influences on the pre-service kindergarten teachers' perceived subjective well-being. The pre-service kindergarten teachers in university are the stronger life satisfaction and positive affect they have. The pre-service kindergarten teachers who estimated teaching career more than 10 years show higher

life satisfaction than those less than 10 years.

Also, the level of pre-service kindergarten teachers' perceived psychological well-being is higher than average. The most highly perceived subordinate factors of psychological well-being is positive relation with others, whereas autonomy is most lowly perceived.

Among the pre-service kindergarten teachers' variables, age, estimated teaching career appeal to have significant influences on the pre-service kindergarten teachers' perceived psychological well-being. The younger pre-service kindergarten teachers are, the stronger psychological well-being, positive relations with others and self-acceptance they have. The pre-service kindergarten teachers who estimated teaching career more than 10 years show higher psychological well-being, autonomy, environmental mastery and self-acceptance than less than 10 years the pre-service kindergarten teachers.

Second, the level of pre-service kindergarten teachers' ego-resilience is generally higher than average. The most highly perceived subordinate factors of subjective well-being is optimism, whereas skilled expressiveness is most lowly perceived.

Among the pre-service kindergarten teachers' variables, education level, estimated teaching career appeal to have significant influences on the pre-service kindergarten teachers' ego-resilience. The pre-service kindergarten teachers in university are the stronger personal efficiency they have. The pre-service kindergarten teachers who estimated teaching career more than 10 years show higher optimism than less than 10 years the pre-service kindergarten teachers.

Third, there i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well-being of pre-service kindergarten teachers and ego-resilience of pre-service kindergarten teachers. Subordinate factors of subjective well-being have positive relationship with subordinate factors of ego-resilience. Subordinate factors of psychological well-being have positive relationship with subordinate factors of ego-resilience as well.